

OECD 교육성과 지표(INES LSO) 네트워크사업(2015)

기본사업

2015-4

유한구
채창균
양정승
신동준
황승복

OECD 교육성과 지표(INES LSO) 네트워크사업(2015)

보안등급 | 일반과제

기본사업

2015-4

유한구
채창균
양정승
신동준
황승록

머 리 말

인적자원의 경제적·사회적 의미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경제협력 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는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주요 통계들을 국가 수준에서 비교 지표들을 개발하여 『OECD 교육지표집(Education at a Glance; EAG)』이라는 국제통계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교육 관련 국가수준 통계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가입 국가는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본원은 이 중 LSO(Labor Market & Social Outcomes of Learning) 네트워크를 담당하여 관련 자료들을 OECD에 제공하고 관련 지표들을 검증하고 있으며, 연 2차례 개최되는 총회 및 분과 회의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동향을 파악하며, 관련 신규 지표 개발 참여 모색 및 신규 과제 제안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도 OECD INES 교육성과 네트워크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13차·14차 네트워크 총회 내용 및 분과별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총회 내용 중 유럽 고용주 조사를 소개하고 관련된 우리나라의 지표를 비교하여, 향후 청년층 노동시장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용주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 사업은 본원의 유한구 박사가 과제책임자로, 채창균 박사와 양정승 박사, 신동준 연구원, 황승록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자리를 빌려 연구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교

육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5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이 용 순

제목 차례

요 약

제1장 사업 개요_1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통계의 범위 및 기준	6
제3절 2015년 주요 사업 내용	8

제2장 OECD EAG 통계자료 제공과 주요 내용_13

제1절 EAG 2015의 구조	15
제2절 EAG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청과의 협의	17
제3절 EAG 2015 통계자료 제공 및 검증	28
제4절 EAG 2016 통계자료 제공	36

제3장 OECD INES LSO 네트워크 총회 및 분과별 활동_37

제1절 제13차 총회 및 분과별 활동	39
제2절 제14차 총회 및 분과별 활동	58

제4장 청년 니트 문제에 대한 접근 – OECD 국가와 한국_81

제1절 도입	83
제2절 OECD 국가의 청년 니트 정책	84
제3절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 정책	97

제5장 결론_105

제1절 사업 내용 요약 107
제2절 당면 현안 109

참고문헌_113

부 록_115

1. 통계청 협의 자료 117

표 차례

<표 1-1>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와 한국의 학제	7
<표 1-2> EAG 2015: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 관련 지표 목록	8
<표 1-3> EAG 2014: 학교에서 직장이행 단계의 15~29세 청년층 관련 지표 목록	9
<표 2-1> EAG 2015의 구조	16
<표 2-2>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Indicator A6) 산출식	20
<표 2-3>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이동(Indicator C5) 산출식	25
<표 2-4>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와 한국의 학제	29
<표 2-5> (EAG 2015) 제공 통계표 목록: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 ..	29
<표 2-6> (EAG 2015) 검증 통계표 및 차트 목록: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	32
<표 2-7> EAG 2015: 학교에서 직장이행 단계의 15~29세 청년층 관련 지표 목록	34
<표 2-8> EAG 2015: 학교에서 직장이행 단계의 15~29세 청년층 관련 지표 계산식	36
<표 3-1> 계속교육(CVT)의 두 가지 유형	45
<표 3-2> 전공 영역-2수준(Fields of education at the 2-digit level) ..	68
<표 4-1> 청년층 고용지원 공공서비스	103

그림 차례

- [그림 3-1] 2012년도 15~24세 학생의 일·학습 프로그램 참여율 .. 46
- [그림 3-2] 15~24세 실업률과 15~64세 실업률 관계 47
- [그림 3-3] 청년층 실업률과 NEET 비율의 관계 48
- [그림 3-4] NEET/NEFE의 변화와 15~64세 실업률의 변화 49
- [그림 3-5] 응답자와 부모의 교육수준별 고졸 대비 시간당 임금 .. 52
- [그림 3-6] 스킬수준과 스킬의 활용도 54
- [그림 3-7] 직업별 스킬수준과 스킬의 활용도 55
- [그림 3-8] 교육수준별 월 최소 1회 이메일 사용자(Use of email
at least once a month by level of education, 2012) .. 64
- [그림 3-9] 교육수준별 월 최소 1회 인터넷 사용자(Use of the Internet
at least once a month by level of education, 2012) ... 64
- [그림 3-10] 교육수준별 월 최소 1회 온라인 거래 사용자(Use of
online transaction at least once a month by educational
level, 2012) 65
- [그림 3-11] 교육수준별 월 최소 1회 실시간 토론 활용자(Use of
online real-time discussions at least once a month by
educational level, 2012) 65
- [그림 3-12] 참여국가 평균 16~29세 NEET 규모(16~29 year-olds
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NEET),
average of participating countries) 66
- [그림 3-13] 언어능력 수준별 NEET 비율-16~29세(Chart NEET (L).
Percentage of NEET, by literacy proficiency(2012)

	16~29 year-olds 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NEET), average of participating countries) …	69
[그림 3-14]	수리력 수준별 NEET 비율-16~29세(Chart NEET (N). Percentage of NEET, by numeracy proficiency(2012) 16~29 year-olds 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NEET), average of participating countries) …	69
[그림 3-15]	ICT 기반 문제해결력 수준에 따른 NEET 비율(Chart NEET (P). Percentage of NEET, by skills and readiness to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for problem solving(2012), 16-29 year-olds 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NEET), average of participating countries) …	70
[그림 3-16]	성인학습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dult learning) …	71
[그림 3-17]	건강생활기간과 기대수명(Healthy years and life expectancy, males, 2008) …	75
[그림 3-18]	고등교육 이수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집단 비율 (Rate of people with earnings from work having attained tertiary level of education. Percent) …	77
[그림 4-1]	OECD 국가들의 비경활 및 실업 상태의 니트족 구성 (2011/2012년 기준) …	87
[그림 4-2]	OECD 국가 니트 청년층의 교육수준 구성(2012년 기준) …	89
[그림 4-3]	OECD 국가 니트 청년층(15~29세)의 성별 격차(2013년 기준) …	91

[그림 4-4] 청년층의 니트 비율	97
[그림 4-5] 연령별·학력별 청년층의 니트 비율	98
[그림 4-6] 대졸 이상 청년층의 니트 비율	99
[그림 4-7]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실업자와 비경활 비율 ..	100
[그림 4-8]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과 니트 비율	101
[그림 4-9] 니트 비율과 니트의 경제적 비용 간의 관계	102

요 약

1. 사업의 목적

- OECD가 발간하고 있는 대표적 교육통계 자료집인 『Education at a Glance(EAG)』에 활용될 한국의 LSO 관련 통계자료를 발굴·가공하여 제공하고 검증
- OECD INES LSO 총회(연 2회)에 참석하여 EAG 지표를 검토하고 신규 지표 개발 작업에 참여
- OECD INES LSO 분과별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을 중심으로 최근 교육의 노동시장 및 사회적 성과 관련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비교 워킹페이퍼와 이슈 브리프를 작성
- OECD EAG 동향을 소개하여 교육의 노동시장 및 사회적 성과와 관련된 국제적인 관심 주제와 시각을 원내외로 공유

2. OECD INES LSO 주요 사업

- EAG 2015를 위한 기본 통계자료의 검증
 -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A6) 지표 검증
 - 학교에서 직장이행 단계의 15~29세 청년층 현황(C5) 지표 검증

- C5지표 검증 과정에서 2008년부터 누적되어 온 오류 발견
 - 과거 시계열 데이터 수정으로 EAG 2014까지 수록되었던 지표와 현재 웹(Web)상의 지표와 다를 수 있음에 유의
- EAG 2016을 위한 기본 통계자료의 생성 제공
- NEAC 데이터 생성 제공
 - EAG 2016의 A파트 테이블 원자료로 사용됨.
 - TRANS 데이터 생성 제공
 - EAG 2016의 C파트 테이블 원자료로 사용됨.
 - EAG의 구조는 매년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거나 기존 지표를 삭제·변경하는 방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다른 이슈의 지표에 대한 국내 통계자료를 발굴·제공할 필요가 있음.
- OECD INES LSO 네트워크의 4개 분과(Working Group)에서 필요한 원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
- 제 1분과는 성인학습, 제2분과는 교육의 경제적 성과, 제3분과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이행성과, 제4분과는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다루고 있으며, 다음 해의 EAG 발간에 필요한 관련 통계자료를 각 분과별로 요청
 - 유럽 중심의 OECD 국가와 비교하여 국가적인 수준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일부 데이터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표본의 대표성 등 통계품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 및 통계청과 협의

- 연 2회 OECD INES LSO 네트워크 총회에서 4개의 지표 개발 분과 회의에 참석하여 지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나라의 데이터 제공 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
 - 총회에서는 매년 EAG 수록을 위한 정규 데이터 수집, 추가적 데이터 수집, 추가 지표 개발, 지표 개선,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국가별 분류 및 데이터 체계 비교 등을 수행
 - 4개의 지표 개발 분과 회의에서는 데이터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한 통계 데이터 존재 여부 및 여건에 대한 의견 및 필요한 의견을 개진

- OECD LSO 각종 통계 및 EAG 내용과 총회에서 논의된 국제적 현안에 대해 국제비교 워킹페이퍼 작성 및 출간(예정)

- OECD LSO 총회 원내 공유회의 개최(예정)
 - EAG 2015에 새롭게 소개되는 지표들의 소개
 - 13차 및 14차 INES LSO 네트워크 회의(칠레 및 벨기에 개최)에서 발표된 내용 중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연구내용들을 소개
 - PIAAC 학술대회 참가예정자들과 연구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자료 제공

- 13차 총회에서 NEET 비율 관련 비형식 교육을 NEET에서 제외하기로 함.
 - 현행 NEET 비율은 정규 교육(formal education) 중 혹은 고용되어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 모두 NEET에 포함됨.

- 우리나라는 비정규 교육(non-formal education) 기관에 다니면서 인적자본을 개발 중인 청년층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들을 비활동(inactive) 청년층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
- LSO의 입장은 이들이 다니는 기관의 질이 충분하다면 ‘교육 중’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
- EAG 2015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EAG 2016부터 비정규 교육(non-formal education)을 반영하기로 함.

3. 청년 니트 문제에 대한 접근

- 본 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의 청년 니트 현황과 이에 대한 각국의 대처 방안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 현황과 관련 정책을 소개함.
- OECD 국가의 경우, 청년 니트가 주로 저학력 청년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학교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청년 니트가 대졸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도 학교교육보다는 고용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OECD 국가의 청년 니트 현황과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 현황 및 청년 니트 대책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니트 관련 대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4. 당면 현안

- 청년 니트 지표와 관련하여 EAG 2016부터 비형식 교육 참여자를 니트 지표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지표 산출을 위하여 통계청,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협의 예정
- 통계청이 생산하는 자료의 활용과 관련하여 통계청이 공표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에 대하여 국제기구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계청 담당자의 공동연구원 참여’, ‘자료 제공 검증 위원회 구성’ 등을 고려하고 있음.
- OECD 신규 지표 개발에 대한 참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사업 개요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통계의 범위 및 기준

제3절 2015년 주요 사업 내용

제1장 | 사업 개요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업의 필요성

- 인적자원에 대한 통계수요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주요 통계들을 지표화하여 국제통계집인 『OECD 교육지표집(Education at Glance; EAG)』 발간
 - 1990년대 후반부터 발간해 오고 있는 통계자료집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가입 국가는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
- 『OECD 교육지표집』에 수록된 통계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짐.
 - ① 교육 시스템 전반(인적자원 공급체계)에 관한 통계
 - ② 교육의 경제·사회적 성과: 인적자원의 배분·활용·성과

4 OECD 교육성과 지표(INES LSO) 네트워크사업(2015)

- OECD는 『OECD 교육지표집』에 수록할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해 교육체계지표사업(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 INES)을 수행
 - 1988년에 출범하여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룸.
 - 기초자료 수집은 유럽 연합 및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주요 교육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국가별 자료 수집을 통해 비교가능한 최신의 지표를 개발
 - 초기에 INES 사업은 통계 분야의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A(교육평가 분야), 네트워크 B(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분야), 네트워크 C(학교교육 및 교육정책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
 - 2008년 INES 사업의 지배구조 변경과 함께 교육평가를 다루는 네트워크 A분야는 폐지되고, 기존의 네트워크 C와 B분야는 각각 학교교육 통계를 담당하는 교육 시스템 네트워크(NESLIE) 및 교육성과 네트워크(Labor Market & Social Outcomes of Learning; LSO)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LSO(Labor Market & Social Outcomes of Learning)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은 NESLI(system-level descriptive information on educational structures, policies and practices)를 담당하며, OECD INES 총괄 주관기관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임.
 - 모든 사업비를 OECD가 부담하던 기존 방식에서 네트워크별 운영비를 참가국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

-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과 지배구조 변경의 기본 취지는 참여 회원국의 분담금 납부를 통해 네트워크 사업 참여의 적극성을 높이고, 비교적 자유롭게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활용과 참여국의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지표 관련 국제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표의 질적 개선을 위한 것임.

2. 사업의 목적

- OECD가 발간하고 있는 대표적 교육통계 자료집인 『Education at a Glance(EAG)』에 활용될 한국의 LSO 관련 통계자료를 발굴·가공하여 제공하고 검증
- OECD INES LSO 총회(연 2회)에 참석하여 EAG 지표를 검토하고 신규 지표 개발 작업에 참여
- OECD INES LSO 분과별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을 중심으로 최근 교육의 노동시장 및 사회적 성과 관련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비교 워킹페이퍼와 이슈 브리프를 작성
- OECD EAG 동향을 소개하여 교육의 노동시장 및 사회적 성과와 관련된 국제적인 관심 주제와 시각을 원내외로 공유

제2절 통계의 범위 및 기준

- 교육의 노동시장 및 사회적 성과를 산출하는 기준으로 이용하는 교육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적용
 - 원칙적으로 EAG 수록 교육지표는 관련기관의 형태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맥락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전체 교육체제를 포괄
 - 교육기관 주도적 학교와 작업장 연계 프로그램 외의 작업장에서의 직업기술훈련은 기본적인 교육비 지출 및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
 - 정규(regular) 교육과 유사한 학습이나 교과목 내용 또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하는 성인교육 및 비정규 교육 활동은 포함되나, 일반적인 관심사나 개인적 소양 증진, 레저나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성인강좌는 제외

- OECD 평균치(OECD Average)와 OECD 전체값(OECD Total)의 구분
 - OECD 평균치: 모든 회원국의 통계치를 국가별 교육체제의 절대적 규모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 평균하여 계산한 것
 - 특정 국가의 통계치가 평균적인 국가의 통계치와 어떻게 비교되는지 알아보는데 이용할 수 있음.
 - OECD 전체: 자료 입수나 추정이 가능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가중 평균치
 - 이는 OECD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볼 때 갖게 되는 의미로서 개별국가의 통계치를 전체 OECD 통계치와 비교할 때 유용

-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이후 ISCED 약칭)에 따른 교육단계를 적용
 - EAG 2014까지는 1997년의 ISCED 97에 기초
 - EAG 2015부터 <표 1-1>의 ISCED 2011 적용

〈표 1-1〉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와 한국의 학제

구분	ISCED 명칭	한국의 학제
ISCED 0	Early childhood education	영유아 과정(유치원/어린이집)
ISCED 1	Primary education	초등 과정
ISCED 2	Lower secondary education	전기 중등 과정(중학교)
ISCED 3	Upper-secondary education	후기 중등 과정(고등학교)
ISCED 4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중등 후 비학위 과정
ISCED 5	Short-cycle Tertiary education	전문(산업)학사(또는 상당) 과정
ISCED 6	Bachelor's or equivalent level	학사(또는 상당) 과정
ISCED 7	Master's or equivalent level	석사(또는 상당) 과정
ISCED 8	Doctoral or equivalent level	박사(또는 상당) 과정
ISCED 9	Not elsewhere classified	기타

자료: 통계청(2014)과 UNESCO(2012)에서 재구성

제3절 2015년 주요 사업 내용

- EAG 2015를 위한 기본 통계자료의 검증¹⁾
 -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A6) 지표 검증
 - 학교에서 직장이행 단계의 15~29세 청년층 현황(C5) 지표 검증
 - 지표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수정
 - 과거 시계열 데이터 수정으로 EAG 2014까지 수록되었던 지표와 현재 웹(Web)상의 지표와 다를 수 있음에 유의

〈표 1-2〉 EAG 2015: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 관련 지표 목록

Indicator A6: 교육으로부터 얻은 소득 프리미엄
Tables
Table A6.1a. 25~64세의 교육수준별, 연령별 상대 소득 (2013)
Table A6.1b. 25~64세의 교육수준별, 성별 상대 소득의 추이(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웹조사)
Table A6.2a. 25~64세의 교육수준별, 연령별 남성과 여성의 소득격차(2013)
Table A6.2b. 25~64세의 교육수준별 남성과 여성의 소득격차 추이(2005, 2010, 2011, 2012, 2013)
Table A6.3. 25~64세의 교육수준별, 연령별, 성별 전일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근로자 비율
Table A6.5a. 15~24세 학생의 교육수준별, 성별 상대 소득(2013)
Table A6.5b. 15~24세의 연령별, 학생여부별, 성별 고용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비율 (2013)
Charts
Chart A6.1. 25~64세의 교육수준(대학학위 수준)별 상대 소득(2013)
Chart A6.2. 교육수준(대학학위 수준)별 장년층(55~64세)과 청년층(25~34세)의 상대 소득 격차(2013)
Chart A6.3. 대학학위 이상 근로자의 중위소득 대비 임금 수준(2013)

1) 각 테이블별 자세한 산식은 2장 참조

〈표 1-3〉 EAG 2014:학교에서 직장이행 단계의 15~29세 청년층 관련 지표 목록

Indicator C5: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이동: 15~29세
Tables
Table C5.1a. 근로상태별 15-29세 인구의 교육 및 비교육 기대년수 (2013)
Table C5.1b.(웹조사) 근로상태별, 성별 15-29세 인구의 교육 및 비교육 기대년수 (2013)
Table C5.1c.(웹조사) 성별 15-29세 인구의 교육 및 비교육 기대년수 추이 (1999-2013)
Table C5.2a. 연령별, 근로상태별 15-29세 재학 중 인구와 비재학중 인구의 비율(2013)
Table C5.2b.(웹조사) 연령별, 근로상태별 15-29세 남성의 재학 중 인구와 비재학 중 인구의 비율(2013)
Table C5.2c.(웹조사) 연령별, 근로상태별 15-29세 여성의 재학 중 인구와 비재학 중 인구의 비율(2013)
Table C5.3a. 연령별 15-29세의 재학 중 인구와 비재학중 취업, 비취업 인구 비율 추이(1997-2013)
Table C5.3b.(웹조사) 연령별 15-29세 남성의 재학 중 인구와 비재학중 취업, 비취업 인구 비율 추이(1997-2013)
Table C5.3c.(웹조사) 연령별 15-29세 여성의 재학 중 인구와 비재학중 취업, 비취업 인구 비율 추이(1997-2013)
Table C5.3d.(웹조사) 교육수준별 15-29세의 재학 중 인구와 비재학중 취업, 비취업 인구 비율 추이(2006-13)
Table C5.4 교육수준별, 근로상태별 15-29세 재학 중 인구와 비재학중 인구의 비율(2013)
Table C5.5. 교육 및 비교육에서 15-29세의 파트타임과 풀타임근무자의 비율 추이 (2006-2013)
Charts
Chart C5.1. 15-29세 NEET 인구의 변화(2006-13)
Chart C5.2. 근로상태별 15-29세 재학 중 인구와 비재학 중 인구의 비율(2013)
Chart C5.3 15-29세 비재학 중 취업, 비취업 인구의 비율(2013)
Chart C5.4. 고졸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15-29세 NEET 인구의 변화(2011-13)
Chart C5.4. 15-29세 파트타임 근로와 풀타임 근로 인구의 변화(2006-13)

○ EAG 2016를 위한 기본 통계자료의 생성 제공

- NEAC 데이터 생성 제공

• EAG 2016의 A파트 테이블 원자료로 사용됨.

10 OECD 교육성과 지표(INES LSO) 네트워크사업(2015)

- TRANS 데이터 생성 제공
 - EAG 2016의 C파트 테이블 원자료로 사용됨.
- EAG의 구조는 매년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거나 기존 지표를 삭제·변경하는 방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다른 이슈의 지표에 대한 국내 통계자료를 발굴·제공의 필요가 있음.
- OECD INES LSO 네트워크의 4개 분과(Working Group)에서 필요한 원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
 - 제1분과는 성인학습, 제2분과는 교육의 경제적 성과, 제3분과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이행성과, 제4분과는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다루고 있으며, 다음 해의 EAG 발간에 필요한 관련 통계자료를 각 분과별로 요청
 - 유럽 중심의 OECD 국가와 비교하여 국가적인 수준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일부 데이터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표본의 대표성 등 통계품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 및 통계청과 협의
- 연 2회 OECD INES LSO 네트워크 총회에서 4개의 지표 개발 분과 회의에 참석하여 지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나라의 데이터 제공 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
 - 총회에서는 매년 EAG 수록을 위한 정규 데이터 수집, 추가적 데이터 수집, 추가 지표 개발, 지표 개선,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국가별 분류 및 데이터 체계 비교 등을 수행
 - 4개의 지표 개발 분과 회의에서는 데이터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한 통계 데이터 존재 여부 및 여건에 대한 의견 및 필요한 의견을 개진

- OECD LSO 각종 통계 및 EAG 내용과 총회에서 논의된 국제적 현안에 대해 국제비교 워킹페이퍼 작성 및 출간(예정)²⁾
- OECD LSO 총회 원내 공유회의 개최(예정)
 - EAG 2015에 새롭게 소개되는 지표들의 소개
 - 13차 및 14차 INES LSO 네트워크 회의(칠레 및 벨기에에서 개최)에서 발표된 내용 중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연구내용들을 소개
 - PIAAC 학술대회 참가예정자들과 연구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자료 제공
- NEET 비율 관련하여 OECD 통계와 국내 통계와의 불일치 문제 해소
 - 현행 NEET 비율은 정규 교육(formal education) 중 혹은 고용되어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 모두 NEET에 포함됨.
 - 우리나라는 비정규 교육(non-formal education) 기관에 다니면서 인적자본을 개발 중인 청년층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들을 비활동(inactive) 청년층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
 - 11차 및 12차 총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 전달
 - LSO의 입장은 이들이 다니는 기관의 질이 충분하다면 '교육 중'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
 - EAG 2015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EAG 2016부터 비정규 교육

2) 워킹페이퍼의 개략적인 내용을 본 보고서 4장에 수록함.

12 OECD 교육성과 지표(INES LSO) 네트워크사업(2015)

(non-formal education)을 반영하기로 함.

- 교육부,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과 다투 관련 통계 문제에 대한 OECD 지표의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 자료 제공 방식 등 협의

제2장

OECD EAG 통계자료 제공과 주요 내용

제1절 EAG 2015의 구조

제2절 EAG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청과의 협의

제3절 EAG 2015 통계자료 제공 및 검증

제4절 EAG 2016 통계자료 제공

제2장 | OECD EAG 통계자료 제공과 주요 내용

제1절 EAG 2015의 구조

- OECD INES 구성체제는 교육체제를 거시수준(전체 교육체제), 중간수준(교육기관, 교육기관 내 교육환경과 학습환경), 미시수준(교육 및 학습 참여자)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함.
 - 개인 또는 교육기관별로 학습 결과와 이와 관련된 투입 및 과정의 관계를 이해할 때 비로소 교육체제의 발전, 기능, 영향에 관한 많은 중요한 특징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함.

- EAG 2015의 장별 구성
 - EAG 2015 Chapter 1(1장)은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 효과
 - EAG 2015 Chapter 2(2장)은 교육 재정 및 투자에 대한 지표
 - EAG 2015 Chapter 3(3장)은 교육접근성에 대한 지표
 - EAG 2015 Chapter 4(4장)는 교육환경에 대한 지표
 - LSO 파트는 주로 1장(A파트) 및 3장(C파트)과 관련됨.

〈표 2-1〉 EAG 2015의 구조

지표 영역	지표명
교육의 산출 및 학습 효과	A1: 성인교육수준
	A2: 청년층의 중등교육 이수 비율
	A3: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
	A4: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등교육 참여에 미치는 효과
	A5: 교육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
	A6: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
	A7: 교육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A8: 교육의 사회적 성과
교육 재정 및 투자	B1: 학생 1인에 대한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투자비용
	B2: 교육에 투자되는 국가재정의 비중
	B3: 공공 및 민간 교육재정 비중
	B4: 공공재정 중 교육회계의 비중
	B5: 고등교육 수업료 및 수업료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B6: 교육재정 지출항목
	B7: 교육재정 지출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소
교육접근성	C1: 교육에 참여하는 인구의 구성
	C2: 국가 간 초등교육제도의 차이
	C3: 고등교육기관 입학 비율
	C4: 국외 학생 및 분포
	C5: 학교에서 직장이행 단계의 15~29세 청년층 현황
	C6: 성인의 교육과 학습 참여
	C7: 공립과 사립 교육기관의 차이
교육환경	D1: 학생들이 교실에서 보내는 시간
	D2: 교사 대비 학생 비율
	D3: 교사의 급여 정도
	D4: 교사가 교수·학습에 사용하는 시간
	D5: 교사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
	D6: 교사양성제도
	D7: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자료: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주: 이 중에서 본원이 제공하는 지표는 A6, C5임.

제2절 EAG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청과의 협의

1. 통계청의 국제기구 원자료 제공 범위 및 방침

- 통계청의 국제기구 원자료 제공 범위와 사업의 내용 충돌
 - 통계청의 고용통계과는 국내 공표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의 국제기구 제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
 - 이러한 방침에 따르면, 그간 제공해 오던 교육수준별 소득 데이터 (Education and Earnings Data)와 노동시장 이행단계의 청년층 현황 (TRANS) 데이터 모두 국내 공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OECD에 제공할 수 없고, 따라서 EAG 2015부터는 관련 부분이 모두 결측값으로 처리될 예정
 - 더불어 NEET 관련 우리가 제기한 문제도 더 이상 필요 없어짐.
 - 통계청의 국내 공표 범위를 넘어서는 데이터 제공의 규제로 향후 신규 지표 개발 참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

2. OECD 제공 통계자료에 대한 통계청 검토 내용

- 통계청의 국제기구 원자료 제공 범위 방침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통계청에서 직접 통계치를 산출하여 검증하기로 함.
 - 검증 후 검증 결과를 토대로 자료 제공에 대해 재협의하기로 함.
- OECD 제공 통계자료(EAG 2014 자료 사용)의 산출식을 통계청에 제공함.

18 OECD 교육성과 지표(INES LSO) 네트워크사업(2015)

- 데이터 및 변수 설명과 통계치의 산출식을 제공함.
- EAG 2014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대한 조치는 EAG 2015에 반영함.

가.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Indicator A6) 산출식

1) 데이터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 자료를 사용함.
- 연령, 학력, 성별, 재학여부 등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 비율을 비교함.

2) 변수 설명

○ 가중치

- 사용변수: V51(승수(weight))
- 가중치/1,000(V51/1,000) 사용

○ 연령(만 나이)

- 사용변수: V50(만 나이)
- 분석 대상: 15~64세(65세 이상 제외)
- 분석 표에 해당하는 연령대에 따라 리코딩하여 사용

○ 교육수준(학력)

- 사용변수: V49(교육 정도 컨버전)

- 1=초졸이하 / 2=중졸 / 3=고졸 / 4=초대졸 / 5=대졸 / 6=대학원졸
- 분석 표에 해당하는 교육수준 범위에 따라 리코딩하여 사용

○ 임금

- 사용변수: V79(최근 3개월간 임금)
- 평균 임금: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 따라서, 0원을 제외한 사람들의 평균 임금임.
즉, 임금(V79)변수를 0초과값만 리코딩한 임금 변수를 사용

○ 전일제: Full time-Full year

- 사용변수: V16(주업시간)
- 전일제 구분: 주업시간 35시간 이상인 경우를 전일제로 정의

○ 재학(student), 비재학(non-student)

- 사용변수: V7(교육정도(수학여부))
- 재학, 비재학 구분: 교육 정도(수학여부) 변수를 리코딩
- 재학: 2=재학
- 비재학: 1=졸업 / 3=중퇴 / 4=휴학

○ 근로소득자 구분

- 사용변수: V79(최근 3개월간 임금), V13(1주간 구직 여부(취업판단 항목))
- 근로소득자, 비근로자 구분: 임금(V79) 변수와 취업판단 항목(V13)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리코딩

- 근로소득자: V79(최근 3개월간 임금)이 0초과인 경우
- 비근로자: V79(최근 3개월간 임금)이 0원이면서, V13(1주간 구직 여부(취업판단항목))에 응답값이 있는 경우
(즉, 임금이 0원이고, V13(1주간 구직여부(취업판단항목))이 미성(=0)이 아닌 경우는 제외)

<표 2-2>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Indicator A6) 산출식

Table A6.1a. 25~64세의 교육수준별, 연령별 상대 소득(2012) Relative earnings of workers,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 group		
사용 변수 및 산출 식	- 연령(V50) 리코딩 (25-64/25-34/55-64) - 학력(V49) 리코딩 (중졸이하/초대졸/대졸이상/ 초대졸이상) - 임금(V79) 리코딩 (0제외, 0초과인 경우만 사용)	- 각 집단별(학력*연령) 평균 임금 계산 (집단별)평균 임금(만 원) $= \frac{(\text{집단별})\text{임금 총액}}{(\text{집단별})\text{임금근로자 수}}$ - 각 집단별(학력*연령) 상대 임금 지수 계산 (집단별)상대 임금 지수 $= \frac{(\text{집단별})\text{평균 임금}}{(\text{집단별})\text{고졸 평균 임금}} \times 100$
비고	- 25-64세의 임금근로자가 분석 대상임. - 임금(V79) 변수값 중에서 0원인 케이스는 제외하고, 0초과인 경우만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함. - 고졸임금을 기준으로 그 외 학력에 대한 상대 임금 지수를 계산함(고졸 평균 임금=100 기준).	
Table A6.2a. 25~64세의 교육수준별, 성별 상대 소득의 추이(2000, 2005, 2010, 2011, 2012) Trends in relative earnings of workers,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gender		
사용 변수 및 산출 식	- 성별(V3) (남자/여자) - 연령(V50) 리코딩 (25-64) - 학력(V49) 리코딩 (중졸이하/초대졸이상) - 임금(V79) 리코딩 (0제외, 0초과인 경우만 사용)	- 각 집단별(성별*학력) 평균 임금 계산 (집단별)평균 임금(만 원) $= \frac{(\text{집단별})\text{임금 총액}}{(\text{집단별})\text{임금근로자 수}}$ - 각 집단별(성별*학력) 상대 임금 지수 계산 (집단별)상대 임금 지수 $= \frac{(\text{집단별})\text{평균 임금}}{(\text{집단별})\text{고졸 평균 임금}} \times 100$

<표 계속>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64세의 임금근로자가 분석 대상임. - 임금(V79) 변수값 중에서 0원인 케이스는 제외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함. - 고졸임금을 기준으로 그 외 학력에 대한 상대 임금 지수를 계산함(고졸 평균 임금=100만 원 기준).
----	---

Table A6.3a. 25~64세의 교육수준별, 연령별 남성과 여성의 소득격차(2012)
Differences in earnings between female and male workers,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 group

사용변수 및 산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V3) (남자/여자) - 연령(V50) 리코딩 (25-64/35-44/55-64) - 학력(V49) 리코딩 (중졸이하/고졸/초대졸이상) - 전일제 구분: 주업시간(V16) 리코딩 (주업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경우를 전일제로 정의) - 임금(V79) 리코딩 (0제외, 0초과인 경우만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집단별(성별*학력*연령) 평균 임금 계산 $\frac{(\text{집단별})\text{평균 임금(만원)}}{(\text{집단별})\text{임금 총액}}$ $= \frac{(\text{집단별})\text{임금근로자 수}}{(\text{집단별})\text{임금근로자 수}}$ - 각 집단별(성별*학력*연령) 여성의 상대 임금 지수 계산 $\frac{(\text{집단별})\text{여성의 상대 임금 지수}}{(\text{집단별})\text{여자 평균 임금}} \times 100$ $= \frac{(\text{집단별})\text{남자 평균 임금}}{(\text{집단별})\text{여자 평균 임금}} \times 100$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64세의 임금근로자가 분석 대상임. - 전일제(주업시간 35시간 이상)인 경우만 분석함(35시간 미만 케이스 제외). - 임금(V79) 변수값 중에서 0원인 케이스는 제외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함. - 남자 임금을 기준으로 여자의 상대 임금 지수를 계산함((여자 평균 임금/ 남자 평균 임금)×100). 	

Table A6.3b. 25~64세의 교육수준별 남성과 여성의 소득격차 추이(2000, 2005, 2010, 2012)
Trends in the differences in earnings between female and male workers, by educational attainment

사용변수 및 산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V3) (남자/여자) - 연령(V50) 리코딩 (25-64) - 학력(V49) 리코딩 (중졸이하/고졸/초대졸이상) - 임금(V79) 리코딩 (0제외, 0초과인 경우만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집단별(성별*학력) 평균 임금 계산 $\frac{(\text{집단별})\text{평균 임금(만 원)}}{(\text{집단별})\text{임금 총액}}$ $= \frac{(\text{집단별})\text{임금근로자 수}}{(\text{집단별})\text{임금근로자 수}}$ - 각 집단별(성별*학력) 여성의 상대 임금 지수 계산 $\frac{(\text{집단별})\text{여성의 상대 임금 지수}}{(\text{집단별})\text{여자 평균 임금}} \times 100$ $= \frac{(\text{집단별})\text{남자 평균 임금}}{(\text{집단별})\text{여자 평균 임금}} \times 100$
------------	--	--

<표 계속>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64세의 임금근로자가 분석 대상임. - 임금(V79) 변수값 중에서 0원인 케이스는 제외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함. - 남자 임금을 기준으로 여자의 상대 임금 지수를 계산함((여자 평균 임금/ 남자 평균 임금)×100).
--------	---

Table A6.5a. 15~24세 학생의 교육수준별, 성별 상대 소득(2012)
Relative earnings of 15~24 year-old students with income from employment,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gender

사 용 변 수 및 산 출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V3) (남자/여자) - 연령(V50) 리코딩 (15-24) - 학력(V49) 리코딩 (중졸이하/고졸/초대졸이상) - 재학 여부 구분: 교육정도 (수학여부)(V7) 리코딩 (2=재학/1,3,4=비재학) - 임금(V79) 리코딩 (0제외, 0초과인 경우만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집단별(학력*성별*재학/비재학) 평균 임금 계산 (집단별)평균 임금(만 원) $= \frac{(\text{집단별})\text{임금 총액}}{(\text{집단별})\text{임금근로자 수}}$ - 각 집단별(학력*성별) 재학생의 상대 임금 지수 계산 (집단별)재학생의 상대 임금 지수 $= \frac{(\text{집단별})\text{재학생의 평균 임금}}{(\text{집단별})\text{비재학의 평균 임금}} \times 100$
--------------------------------------	--	---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24세의 임금근로자가 분석 대상임. - 교육정도(수학여부)(V7) 변수값을 사용하여 재학/비재학 구분함. - 임금(V79) 변수값 중에서 0원인 케이스는 제외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함. - 비재학의 임금을 기준으로 재학생의 상대 임금 지수를 계산함(비재학의 평균 임금=100 기준)
--------	--

Table A6.5b. 15-24세의 연령별, 학생 여부별 고용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비율 (2012)
Proportion of 15~24 year-olds with income from employment among all 15~24 year-olds, by age group and student status

사 용 변 수 및 산 출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V50) 리코딩 (15-24/25-29) - 재학 여부(V7) 리코딩 (2=재학/1,3,4=비재학) - 근로소득자 구분: 임금(V79), 1주간 구직여부(V13) 리코딩 (근로소득자: 임금이 0이 초과인 경우) (비근로자: 임금이 0이 고, 1주간 구직여부(취업판 단항목)(V13)이 0(미성)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집단별(연령*재학/비재학*근로여부) 인 구수 및 근로소득자 비율 계산 (집단별)근로소득자 비율(%) $= \frac{(\text{집단별})\text{근로자의 인구수}}{(\text{집단별})(\text{근로자} + \text{비근로자})\text{의 인구수}} \times 100$
--------------------------------------	---	--

<표 계속>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29세의 임금근로자와 비근로자가 분석 대상임. - 근로자와 비근로자 구분시, 임금(V79) 변수와 1주간 구직여부(취업판단항목)(V13) 변수를 동시에 고려함. (임금이 0원인 사람 중에서 취업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은 제외함.) - 전체 인구수 중에서 근로자 수로 근로소득자 비율을 계산함.
--------	--

나.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이동(Indicator C5) 산출식

1) 데이터

-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 자료를 사용함.
- 경제활동상태, 연령, 학력 등에 따른 학업/비학업의 기대 연수 및 인구 비율을 비교함.

2) 변수 설명

○ 가중치

- 사용변수: V51(승수(weight))
- 가중치/12,000(V51/12,000) 사용

○ 연령(만 나이)

- 사용변수: V50(만 나이)
- 분석 대상: 15~29세(30세 이상 제외)
- 분석 표에 해당하는 연령대(15~19/20~24/25~29)에 따라 리코딩하여 사용

- 학업상태: 학업(in education), 비학업(not in education)
 - 사용변수: V7(교육 정도(수학 여부))
 - 학업, 비학업 구분: 교육 정도(수학 여부) 변수를 리코딩
 - 학업: 2=재학
 - 비학업: 1=졸업 / 3=중퇴 / 4=휴학

- 경제활동상태
 - 사용변수: V52(경제활동상태 구분 항목)
 - 1=취업자 / 2=실업자 / 3=비경제활동인구
 - 분석 표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상태 범위에 따라 리코딩하여 사용하기도 함.

- 근무형태: 전일제(Full-time worker), 시간제(Part-time woker)(비자발적/자발적)
 - 사용변수: V16(주업시간), V20(평소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 등
 - 전일제 근로자: 주업에서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시간제 근로자: 주업에서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자로,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로 구성
 -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주업에서 30시간 미만인 자 중, V20(평소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에서 ‘17.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28.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29. 사업부진·조업중단’에 응답한 자
 - 자발적 시간제 근무자: 주업에서 30시간 미만인 자 중, V20(평소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에서 ‘17.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28.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29. 사업부진·조업중단’에 응답하지 않은 자

- 실업 기간(장기 실업 여부):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사용변수: V29(구직활동기간), V52(경제활동상태 구분 항목)
 - 6개월 미만: V52(경제활동상태 구분 항목)에서 2번 ‘실업자’이면
서 V29(구직활동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6개월 이상: V52(경제활동상태 구분 항목)에서 2번 ‘실업자’이면
서 V29(구직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교육수준(최종학력)
 - 사용변수: V49(교육 정도 컨버전)
 - 1=초졸이하 / 2=중졸 / 3=고졸 / 4=초대졸 / 5=대졸 / 6=대학원졸
 - 분석 표에 해당하는 교육수준 범위에 따라 리코딩하여 사용

〈표 2-3〉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이동(Indicator C5) 산출식

Table C5.1a. 근로상태별 15~29세 인구의 학업 및 비학업 기간의 기대 연수(2012) “Expected years in education and not in education for 15~29 year-olds, by work status”		
사용 변수 및 산 출 식	- 경제활동상태(V52) [비취업자(실업자+비경제 활동인구)/취업자 (취업자/비취업자/비경제 활동인구)] - 학업상태(V7 리코딩) (학업/비학업)	- 경제활동상태별 학업·비학업 기간의 기대 연수 계산 (집단별) 학업·비학업 기대연수 = $\frac{\text{(집단별) 학업·비학업 인구수}}{\text{전체 (15-29세) 인구수}} \times 15(\text{년})$
Table C5.2a. 연령별, 근로상태별 학업 및 비학업에 해당하는 15~29세 인구 비율 (2012) “Percentage of 15~29 year-olds in education and not in education, by age group and work status”		

<표 계속>

사 용 변 수 및 산 출 식	- 연령(V50) 리코딩 (15-19/20~24/25~29) - 경제활동상태(V52)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 근무형태 (전일제/시간제), (비자발적 시간제) - 실업 기간(V52 리코딩) (6개월 미만/6개월 이상) - 학업상태(V7 리코딩) (학업/비학업)	- 각 집단별(연령*경제활동상태 등) 학업·비학업 비율 계산 $= \frac{(\text{집단별}) \text{ 학업} \cdot \text{비학업} \text{ 비율} (\%)}{(\text{집단별}) \text{ 학업} \cdot \text{비학업} \text{ 인구수}} \times 100$
--	--	---

Table C5.3a. 연령별, 근로상태(취업·실업)별 학업 및 비학업에 해당하는 15~29세 인구 비율 추이(1997~2012) “Trends in the percentage of 15~29 year-olds in education and not in education, employed or not, by age group(1997~2012)”

사 용 변 수 및 산 출 식	- 연령(V50) 리코딩 (15-19/20~24/25~29) - 경제활동상태(V52) 리코딩 (취업자/비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 학업상태(V7 리코딩) (학업/비학업)	- 각 집단별(연령*경제활동상태) 학업·비학업 비율 계산 $= \frac{(\text{집단별}) \text{ 학업} \cdot \text{비학업} \text{ 비율} (\%)}{(\text{집단별}) \text{ 학업} \cdot \text{비학업} \text{ 인구수}} \times 100$
--	--	---

Table C5.4. 교육수준별, 근로상태별 학업 및 비학업에 해당하는 15~29세 인구 비율(2012) “Percentage of 15~29 year-olds in education and not in education,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work status”

사 용 변 수 및 산 출 식	- 교육수준(V49) 리코딩 (중졸이하/고졸/초대졸이상) - 경제활동상태(V52)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 근무형태 (전일제/시간제), (비자발적 시간제) - 실업 기간(V52 리코딩) (6개월 미만/6개월 이상) - 학업상태(V7 리코딩) (학업/비학업)	- 각 집단별(교육수준*경제활동상태 등) 학업·비학업 비율 계산 $= \frac{(\text{집단별}) \text{ 학업} \cdot \text{비학업} \text{ 비율} (\%)}{(\text{집단별}) \text{ 학업} \cdot \text{비학업} \text{ 인구수}} \times 100$
--	--	---

<표 계속>

Table C5.5. 학업 및 비학업에 따라 시간제 근로 및 종일제 근로를 하는 15~29세 인구의 비율 추이(2006~2012) “Trends in the percentage of 15~29 year-old part-time and full-time workers in education and not in education”

사 용 변 수 및 산 출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상태(V7 리코딩) (학업/비학업) - 경제활동상태(V52) 리코딩 (취업자/비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근무형태 (시간제), (비자발적 시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상태(학업·비학업)별 시간제 및 종일 제 비율 계산 (집단별) 시간제·종일제 비율(%) $= \frac{(\text{집단별}) \text{ 시간제} \cdot \text{종일제} \text{ 근무자 수}}{\text{전체 (15-29세) 인구수}} \times 100$ - 취업자 중에서 시간제 비율 계산 취업자 중 시간제 비율(%) $= \frac{\text{시간제} \text{ 근무자 수}}{\text{전체 (15-29세) 취업자 수}} \times 100$ - 시간제 중에서 비자발적 시간제 비율 계산 시간제 근무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 비율(%) $= \frac{\text{비자발적} \text{ 시간제} \text{ 근무자 수}}{\text{시간제} \text{ 근무자 수}} \times 100$
--	---	---

3. 제공 통계자료에 대한 통계청 검토 결과

- 통계자료 산출식에 근거하여 통계청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A6) 분야는 상대표준오차(RSE)가 모두 25% 미만이므로 모두 제공 가능
 - 단, 웹조사 A6.4.(25~64세의 성별, 교육수준별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의 분포)는 자료가 불분명하여 미제공
 - 학교에서 직장이행 단계의 15~29세 청년층 현황(C5) 분야는 자발적 시간제 지표에서 “평소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를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조업중단’만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재협의하거나 미제공

- 통계청 검토 결과를 토대로 통계자료 제공 기준을 변경함.
 -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A6) 분야의 웹조사 A6.4.(25~64세의 성별, 교육수준별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의 분포)의 자료는 미제공 하기로 함.
 - 학교에서 직장이행 단계의 15~29세 청년층 현황(C5) 분야의 자발적 시간제 지표는 EAG 2015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임.

제3절 EAG 2015 통계자료 제공 및 검증

1.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A6)

가. 통계자료 제공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년 8월) 자료를 사용하여 OECD 제공 양식에 따라 통계표를 작성함(<표 2-5> 참조).
 -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 등에 따라 근로자 수, 임금 총액 등을 산출함(<표 2-2> 참조).
- 모든 통계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 가중치는 ‘가중치 변수/1,000’을 적용함.
- 연령대는 15~64세가 통계분석 대상임.

- 연령대는 기본적으로 15~24세/25~29세/30~34세/35~44세/45~54세/55~64세 구간으로 구분함.

○ 교육수준 구분은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을 적용함.

〈표 2-4〉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와 한국의 학제

구분	ISCED 명칭	한국의 학제
ISCED 0	Early childhood education	영유아 과정(유치원/어린이집)
ISCED 1	Primary education	초등 과정
ISCED 2	Lower secondary education	전기 중등 과정(중학교)
ISCED 3	Upper-secondary education	후기 중등 과정(고등학교)
ISCED 4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중등 후 비학위 과정
ISCED 5	Short-cycle Tertiary education	전문(산업)학사(또는 상당) 과정
ISCED 6	Bachelor's or equivalent level	학사(또는 상당) 과정
ISCED 7	Master's or equivalent level	석사(또는 상당) 과정
ISCED 8	Doctoral or equivalent level	박사(또는 상당) 과정
ISCED 9	Not elsewhere classified	기타

자료: 통계청(2014)과 UNESCO(2012)에서 재구성

〈표 2-5〉 (EAG 2015) 제공 통계표 목록: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

Crosstable A: Relative earnings from work.
Page 1. Total earnings from work for the population 15-64 years of age (local currency)
Page 2. Number of people in the population 15-64 years of age who have had earnings from work
Page 3. Number of people in the population 15-64 years of age who have not had earnings from work

<표 계속>

Page 4. Total earnings from work for people with full-time full year work.
Page 5. Total number of people with earnings from work who have worked full-time full year
Page 6. Total earnings from work for people who have NOT worked full-time full year
Page 7. Total number of people with earnings from work who have NOT worked full-time full year
Page 8. Total number of people in the population 15-64 years of age
Page 9. Total number of respondents (sample items) for people with earnings from work who have worked full-time full year
Page 10. Total number of respondents (sample items) for people with earnings from work who have NOT worked full-time full year
Page 11. Total number of respondents (sample items) for people who have not had any earnings from work
Page 12. Mean earnings from work for the population 25-64 years of age who have had earnings from work
Page 13. Mean earnings from work for the population 25-64 years of age who have had earnings from work
Page 14. Mean earnings from work for women 25-64 years of age who have had earnings from work
Crosstable B: Dispersion of earnings
Page D1. Number of people by sex, ag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category of level of earnings for the age-group 25-34 years of age
Page D2. Number of people by sex, ag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category of level of earnings for the age-group 35-44 years of age
Page D3. Number of people by sex, ag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category of level of earnings for the age-group 45-54 years of age
Page D4. Number of people by sex, ag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category of level of earnings for the age-group 55-64 years of age
Page D5. Number of people by sex, ag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category of level of earnings for the age-group 25-64 years of age

<표 계속>

Crosstable C: Earnings of students and non-students

Page 1. Total earnings from work for the population 15-24 years of age (local currency)

Page 2. Total number of people with earnings from work for the population 15-24 years of age

Page 3. Total number of people without earnings from work for the population 15-24 years of age

Page 4. Total earnings from work for the population 25-29 years of age (local currency)

Page 5. Total number of people with earnings from work for the population 25-29 years of age

Page 6. Total number of people without earnings from work for the population 25-29 years of age

Page 7. Total number of respondents (sample items) for people with earnings from work for the population 15-24 years of age

Page 8. Total number of respondents (sample items) for people without earnings from work for the population 15-24 years of age

Page 9. Total number of respondents (sample items) for people with earnings from work for the population 25-29 years of age

Page 10. Total number of respondents (sample items) for people without earnings from work for the population 25-29 years of age

나. 통계자료 검증

- 제공한 통계표를 근거로 OECD에서 통계표 및 차트를 작성함.
 - 제공한 통계표를 근거로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 평균 임금, 상대 임금 등에 대한 통계표와 차트를 산출함(<표 2-6> 참조).
 - 산출한 통계표와 차트의 수치에 대해 검증을 요청해 옴.

- 통계표 산출식에 근거하여 통계표의 수치와 차트의 수치를 검증함.
 - 통계표 제공 시의 산출 근거를 기준(연령, 교육수준 구분 기준 등)으로 통계수치를 검증함.

- 검증 결과 오류값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함.
 - 검증 결과 수치 오류값이 발견되어 재검증을 통해 수정 요청함.

<표 2-6> (EAG 2015) 검증 통계표 및 차트 목록: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

Tables
Table A6.1a. 25~64세의 교육수준별, 연령별, 성별 상대 소득(2013) Relative earnings of workers, by educational attainment, age group and gender
Table A6.1b. 25~64세의 교육수준별, 성별 상대 소득의 추이(2005, 2005, 2010, 2011, 2012, 2013) (웹조사) Trends in relative earnings of workers,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gender
Table A6.2a. 25~64세의 교육수준별, 연령별 남성과 여성의 소득격차(2013) Differences in earnings between female and male workers,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 group
Table A6.2b. 25~64세의 교육수준별 남성과 여성의 소득격차 추이(2005, 2010, 2011, 2012, 2013) (웹조사) Trends in the differences in earnings between female and male workers, by educational attainment
Table A6.3. 25~64세의 교육수준별, 연령별, 성별 전일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근로자 비율 Percentage of full-time, full-year earners, part-time earners and people without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age group and gender
Table A6.5a. 15~24세 학생의 교육수준별, 성별 상대 소득(2013) Relative earnings of 15~24 year-old students with income from employment,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gender
Table A6.5b. 15~24세의 연령별, 학생 여부별, 성별 고용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비율(2013) Proportion of 15~24 year-olds with income from employment among all 15~24 year-olds, by age group, student status and gender

<표 계속>

Tables
Chart A6.1. 25~64세의 교육수준(대학학위 수준)별 상대 소득(2013) Relative earnings of tertiary-educated workers, by level of tertiary education
Chart A6.2. 교육수준(대학학위 수준)별 장년층(55~64세)과 청년층(25~34세)의 상대 소득 격차(2013) Difference in relative earnings between older and younger tertiary-educated workers, by level of tertiary education
Chart A6.3. 대학학위 이상 근로자의 중위소득 대비 임금 수준(2013) Level of earnings relative to median earnings of tertiary-educated workers

자료: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2. 학교에서 직장이행 단계의 15~29세 청년층 현황(C5)

가. 통계자료 제공

-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2013년) 자료를 사용하여 OECD 제공 양식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하여 제공함.
 - 학교에서 직장이행 단계의 청년층 현황을 성별, 연령대, 경제활동 상태, 근무시간, 학업상태, 교육수준 등에 따른 청년 인구수를 산출함(<표 2-3> 참조).
- 모든 통계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 가중치는 ‘가중치 변수/12,000’을 적용함.
- 연령대는 15~29세의 청년층이 분석 대상임.
 - 연령대는 기본적으로 15~19세/20~24세/25~29세 구간으로 구분함.

-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실업/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근무시간은 1~9시간/10~34시간/35시간 이상으로 구분함.
- 학업상태는 학업/비학업으로 구분하고 교육수준(최종학력)은 국제 표준교육분류(ISCED 2011)를 적용하여 중졸이하/고졸/초대졸 이상으로 구분함.

나. 통계자료 검증

- 제공한 데이터를 근거로 OECD에서 통계표 및 차트를 작성함.
 - 직능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근거로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상태별, 교육수준별, 근무시간별로 학업·비학업 기간의 기대 연수, 청년층 비율 등에 대한 통계표와 차트를 OECD에서 산출함(<표 2-7> 참조).
 - 산출한 통계표(8개)와 차트(4개)의 수치에 대해 검증을 요청해 옴.

<표 2-7> EAG 2015: 학교에서 직장이행 단계의 15~29세 청년층 관련 지표 목록

Indicator C5: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이동: 15~29세	
Tables	
Table C5.1a.	성별 및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15~29세 인구의 학업 및 비학업 기간의 기대 연수(2014) “Expected years in education/not in education from age 15 through~29, by work status and gender(2014)”
Table C5.1b.	(웹 조사) 성별 15~29세 인구의 학업 및 비학업 기간의 기대 연수 추이(2000, 2005, 2010, 2014) “Trends in expected years in education/not in education from age 15 through 29, by gender (2000, 2005, 2010 and 2014)”

<표 계속>

Table C5.2a.	성별, 연령대,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학업 및 비학업에 해당하는 15~29세 인구 비율(2014) “Percentage of 15-29 year-olds in education/not in education, by work status, age group and gender (2014)”
Table C5.2b.	(웹 조사)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학업 및 비학업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상태(취업·비취업)별 15~29세 인구 비율 추이(2000, 2005, 2010, 2014) “Trends in the percentage of 15-29 year-olds in education/not in education, employed or not, by age group and gender(2000, 2005, 2010 and 2014)”
Table C5.3a.	성별, 경제활동상태, 교육수준에 따라 학업 및 비학업에 해당하는 15~29세 인구 비율(2014) “Percentage of 15-29 year-olds in education/not in education, by educational attainment, work status and gender(2014)”
Table C5.3b.	(웹 조사)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라 학업 및 비학업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상태(취업·비취업)별 15~29세 인구 비율 추이(2006, 2010, 2014) “Trends in the percentage of 15-29 year-olds in education/not in education, employed or not,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gender(2006, 2010 and 2014)”
Table C5.4a.	연령대와 근무시간에 따라 학업 및 비학업에 해당하는 15~29세 인구 비율(2014) “Percentage of 15-29 year-olds in education/not in education, by number of hours worked and age group(2014)”
Table C5.4a.	성별과 근무시간에 따라 학업 및 비학업에 해당하는 15~29세 인구 비율(2014) “Percentage of 15-29 year-olds in education/not in education, by number of hours worked and gender(2014)”
Chart	
Chart C5.1.	성별에 따라 20~24세 인구 중 유희청년인구(NEET)의 비율(2014) “NEET population among 20-24 year-olds, by gender(2014)”
Chart C5.2.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학업 및 비학업에 해당하는 20~24세 인구 분포(2014) “Distribution of 20-24 year-olds in education/not in education, by work status(2014)”
Chart C5.3.	근무시간에 따라 비학업에 해당하는 15~29세 인구 비율(2014) “Percentage of 15-29 year-olds year-olds not in education, by number of hours worked in a reference week(2014)”
Chart C5.4.	성별에 따라 취업자 중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학업에 해당하는 15~29세 인구 비율(2014) “Percentage of 15-29 year-olds who work 35 hours or more per week among all employed young adults not in education, by gender(2014)”

자료: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 데이터 산출식에 근거하여 통계표 및 차트의 수치를 검증함.
 - 데이터 제공 시의 산출 근거(연령, 경제활동상태, 교육수준 등) 및 지표 계산식(기대 연수, 유희청년)을 활용하여 통계수치를 검증함.
 - 학업·비학업 기간의 기대 연수와 유희청년 지표에 대한 계산식은 다음의 <표 2-8>과 같음.

<표 2-8> EAG 2015: 학교에서 직장이행 단계의 15~29세 청년층 관련 지표 계산식

지표	계산식
학업·비학업 기간의 기대 연수	전체에 대한 해당 집단의 비율(%)/100*15년
유희청년(NEET)	비학업 인구 중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전체 인구

- 검증 결과 오류값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함.
 - 검증 결과 통계수치에서 오류값이 발견되어 OECD에 수정을 요청함.
 - 수정된 통계표와 차트에 대해 OECD에서 재검증을 요청해서 이에 대해 재검증을 통해 통계표와 차트를 최종 확정함.

제4절 EAG 2016 통계자료 제공

- EAG 2016 통계자료 제공
 - A6파트의 원자료가 되는 Education and Earnings 데이터와 C5파트의 원자료가 되는 TRANS 데이터는 2015년 10월 현재 OECD LSO로부터 생성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향후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생성하여 제공할 예정임.

제3장

OECD INES LSO 네트워크 총회 및 분과별 활동

제1절 제13차 총회 및 분과별 활동

제2절 제14차 총회 및 분과별 활동

제3장 | OECD INES LSO 네트워크 총회 및 분과별 활동

제1절 제13차 총회 및 분과별 활동

1. 개요

- INES LSO 네트워크 13차 총회는 2015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됨.

- 주요 논의 사항
 - EAG Interim 보고서 검토
 - ISCED 2011 적용 검토
 - NEAC, TRANS, 소득(Earnings) 데이터 수집 및 EAG 2015
 - EAG의 교육수준 경향 데이터 출간에 관한 질문 검토
 - 3차 우선순위 평가 작업 결과 및 합의 검토
 - 3차 우선순위 평가 작업 결과를 고등교육지표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EDPC의 고등교육연구 비공식 분과와 LSO 네트워크의 협력 연구 방안 검토

- PIAAC 지표의 진척 사항 확인
 - 숙련과 교육수준 향상의 효과, TRE에서 ICT 스킬, 직업별·교육수준별 숙련분포, 세대 간 이동성(세대 간 사회 이동성 포함)
- PIAAC 2차 조사 국가들(6개 OECD 국가)의 결과를 검토하고 LSO PIAAC 지표에 포함하는 방안 논의
- 분과의 지표 개발 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방향 논의
- EAG 2015의 제안된 지표들 확정
- 데이터 수집과 필요한 연구 지원 논의

2. INES 동향 및 INES 고등교육지표 개발

가. INES 동향

- Education Indicators in Focus(EDIF) 시계열 갱신 공지
- EAG Interim 보고서 출판 관련 정보를 공지
- EAG 2015 발간 일정 확인
- OLIS상에 LSO 문서들을 탑재
- LSO 총회 참가자 명부를 OECD의 공식 이벤트 관리시스템(EMS)에 탑재하였고, 2015년 9월 총회부터 EMS를 통하여 LSO 총회 등록이 가능

- EAG 2014에 표준오차를 수록하였고 Interim 보고서와 EAG 2015에 표준오차를 수록할 것임을 확인함.
- LSO 네트워크의 사무국이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로부터 캐나다 교육부(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 CMEC)로 변경됨.
- 향후 LSO 홈페이지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
- 3차 우선순위 평가 작업(Third INES priority-rating exercise) 결과
 - EAG 지표에 대한 3차 우선순위 평가 작업 결과를 발표
 - 결과를 향후 지표 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임.

나. INES 고등교육지표 개발 계획

-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재정지원에 기초하여 진행할 예정
 - 고등교육 시스템의 성과 벤치마킹(benchmarking)
 - 경향, 지식, 미래 예측의 모니터링
 - 심층(in-depth) 정책 분석(고등교육 시스템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고등교육 시스템의 재정지원)
- OECD 비공식 분과에 의해 고등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책 이슈들을 도출
 - 고등교육 시스템의 성과 벤치마킹은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

- 고등교육 시스템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고등교육 시스템의 재정지원에 관한 심층(in-depth) 정책 분석은 진행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는대로 진행할 예정임.
- 고등교육에 관한 OECD 비공식 분과와 LSO 네트워크의 공동작업으로 진행
- 고등교육지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이스라엘, 뉴질랜드, 캐나다, 노르웨이의 결과를 발표
- 3차 우선순위 평가 작업 결과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지표 개발은 계속 수행하고 참가국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데이터 이용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정보를 갱신하고 공유

3. LSO 지표에 ISCED 2011의 적용

- NEAC과 TRANS 데이터에 적용 계획
- EU-LFS 데이터를 사용한 Eurostat의 정보를 검토
 - 향후 EU-LFS 데이터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들을 OECD에서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임.
- NEAC과 TRANS 데이터 수집 시 교육수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록함.

- ISCED 3수준의 ‘부분이수(partial completion)’는 upper secondary level이 아님.
- ISCED를 3개의 그룹으로 집계하여 추세 데이터를 발표

4. PIAAC 지표 개발

- EAG 2015와 EAG 2016에 수록할 PIAAC지표들에 관하여 PIAAC 위원회로부터 피드백을 받음.
- EAG 2015의 A1, A5, D5 지표들에 수록될 TRE(Technology-Rich Environments)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ICT 스킬 사용 지표를 제안
- EAG 2016에서는 ICT 이용자 유형과 산업별·직업별 ICT 스킬 사용 지표를 개발할 것을 제안
- PIAAC 2차 조사 국가들의 데이터가 발표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데이터를 향후 포함할 방법을 검토할 예정

5. 분과별 활동

가. 성인학습(Adult Learning; AL) 분과

- 고용주가 지원하는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를 다음 항목들과의 관련

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

- ICT 스킬 사용과 준비 정도
- 직업과 업무를 통한 학습
- 업무에서의 기타 활동: 읽기, 쓰기, 수리력, 업무과약(task discretion), 소통스킬(influencing skills), 계획력(planning skills)
- 현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과 고용유형
- 산업

○ EAG 2015의 C6장에 사용될 표와 그림 확정

○ PIAAC 데이터가 아닌 AES 데이터를 사용한 6개국(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위스)는 표와 그림의 아래쪽에 포함하여 PIAAC 데이터를 사용한 국가들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함.

○ EAG 2016에 수록할 지표 개발 계획 승인

- AES를 기초로 개발할 수 있는 지표로 확장: 제공자, 전공, 정보 획득, 정보 출처 등
- non-ESS 국가들에 대한 데이터 요청
- 결과에 기초하여 지표와 텍스트 박스를 구성

○ 우선순위 작업에서 나타난 검토의견 반영

- 성인학습정책의 목표, 정의 등의 기존 작업 검토
- Eurostat Task Force, PIAAC 2021 등 향후 진행될 프로젝트에 검토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행정 마이크로데이터(administrative microdata) 관련
 - 성인 직업교육과 훈련제공 등의 계속교육(Continuing VET; CVET)을 평가하기 위해 행정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하나로서 직업훈련을 평가하는 방법과 몇 가지 방법론상의 문제점들을 탐색
 - 행정 마이크로데이터는 설문조사(survey)의 단점들을 보완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추적조사(longitudinal follow-up) 등이 부가조사와 연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각국의 행정 데이터 이용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표 개발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나 당분간은 현재 제안된 설문조사는 수행하지 않기로 함.
 - 관심 있는 국가들과 관심의 정도를 파악하기로 하였으며, 관심 있는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접촉하여 가능한 방법을 협의

〈표 3-1〉 계속교육(CVT)의 두 가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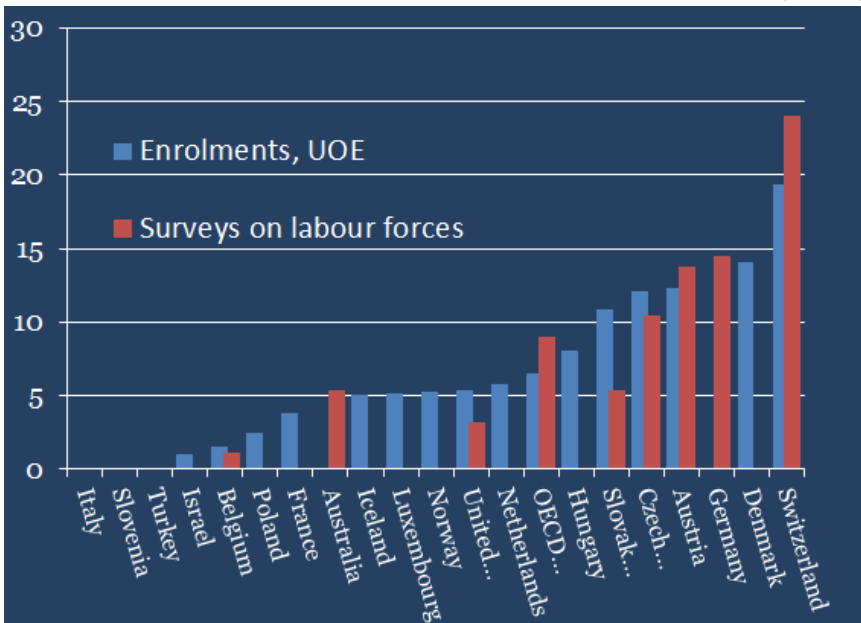
프로그램 유형	설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직업훈련	- 실업자들과 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력전환과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에서의 위탁으로 운영됨.
전문자격시험	- 전형적으로 시험을 통하여 평가되는 산업주도형의 직업 숙련수준에 대한 자격 - 준비를 위한 과정이 강제적이지는 않음. - 자격이 법으로 규정되는 면허(license)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음.

나. 교육과 노동시장 이행(Learning and Labour Transitions; LLT)
분과

- EAG 2016과 EAG 2017의 일·학습 프로그램(work-study programme) 지표 개발 관련
 - 일·학습 프로그램은 급여(earnings)를 지급하면서 학습과 근로를 결합한 정규 교육과 비형식 교육을 의미
 - 일·학습 프로그램은 학업으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

[그림 3-1] 2012년도 15~24세 학생의 일·학습 프로그램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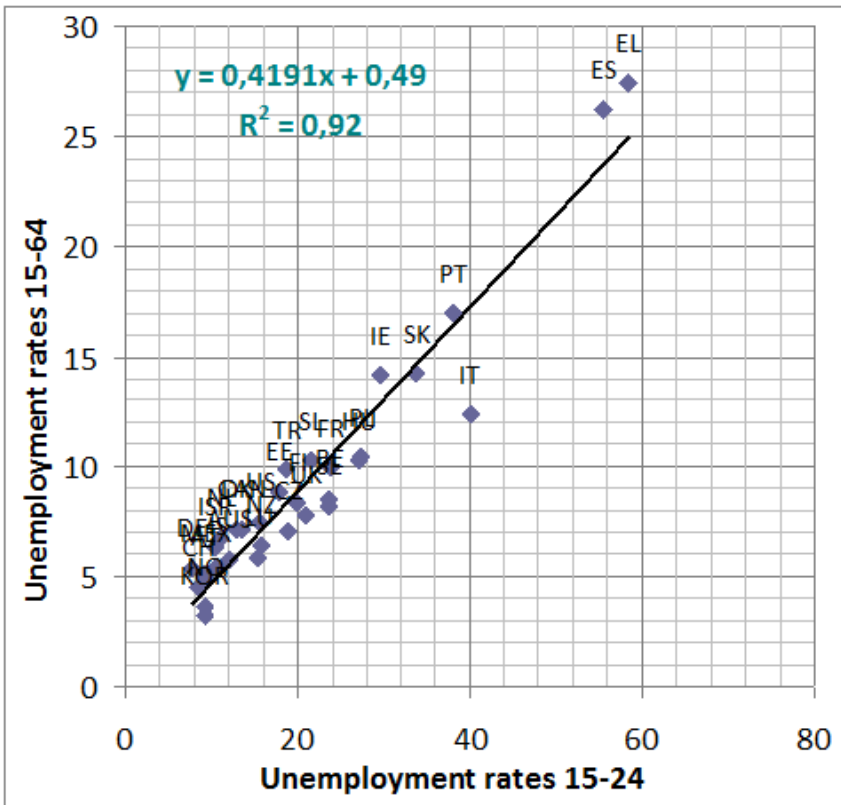
(단위: %)



- 2015년 9월까지 단계적인 개발과정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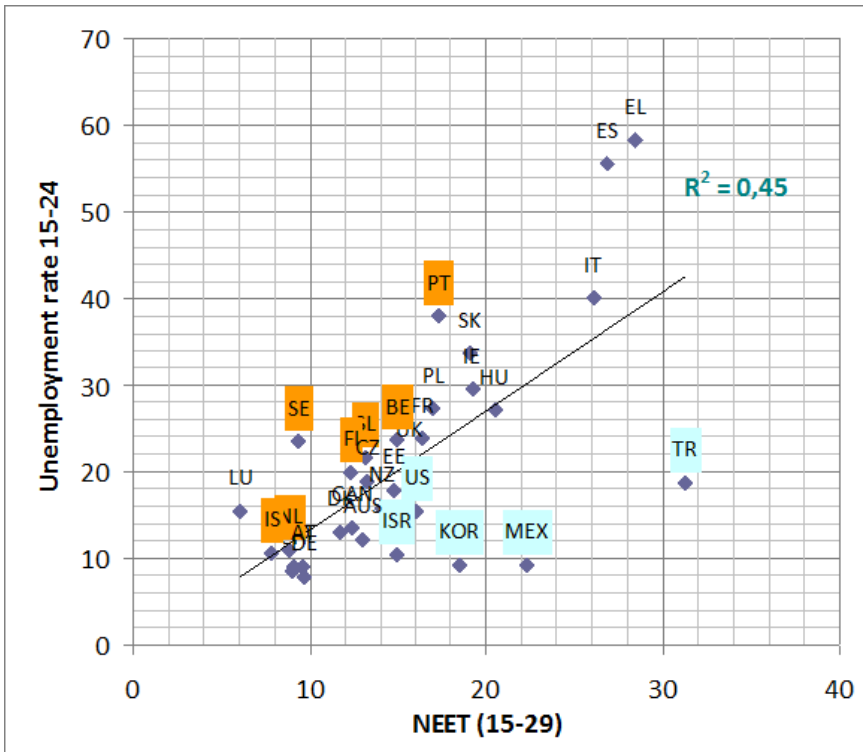
- 2016년 2월까지 데이터 수집 내용을 논의하고 2016년 여름에 데이터를 수집, 2016년 9월 1차 결과 생산
 - 산출물: EAG 2016과 EAG 2017의 텍스트 박스
 - 2015년 10월까지 일·학습 프로그램의 광범위성에 관한 지표 개발에 집중
-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어려움에 관한 지표
-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개방 정도를 나타냄.

[그림 3-2] 15~24세 실업률과 15~64세 실업률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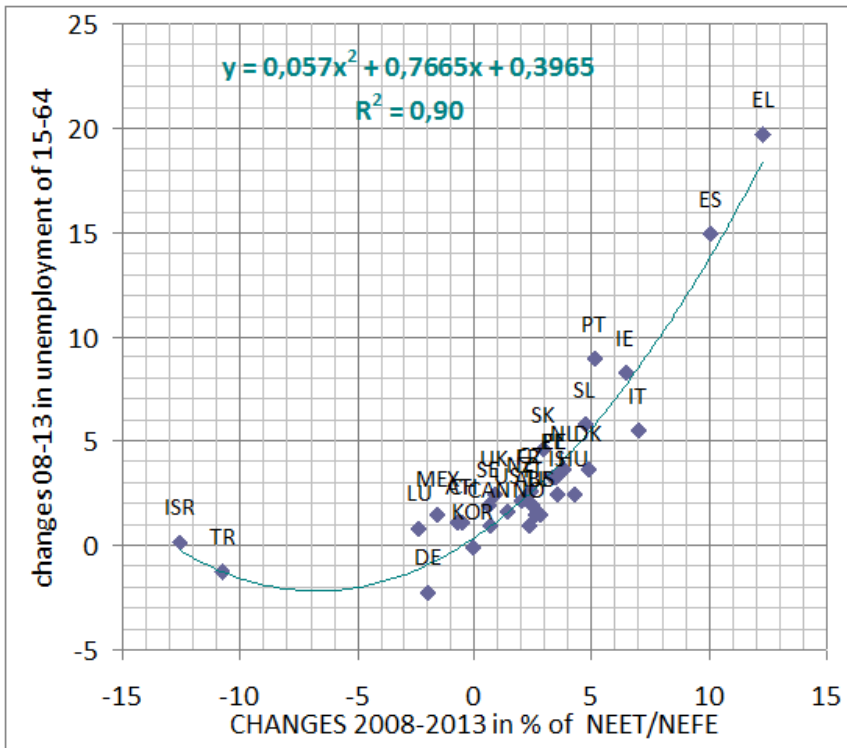
- NEET(Not in Education/Training nor Employment) 비율은 위험에 처해 있는 인구의 크기를 보여줌.
- NEET 비율과 실업률의 비교
 - NEET<실업률: 정규 교육이 청년층의 어려움을 줄이는데 기여
 - NEET>실업률: 청년층의 상당수가 학생이 아니고 비경제활동인구임을 시사

[그림 3-3] 청년층 실업률과 NEET 비율의 관계



- NEET/NEFE 비율의 증가가 15~64세 실업률의 증가보다 낮은 것은 정규 교육에 기인

[그림 3-4] NEET/NEFE의 변화와 15~64세 실업률의 변화



- 연령그룹별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어려움에 관한 지표를 해석
- 최근졸업자(recent graduates)에 관한 조사를 계속 진행

○ EAG 2015 관련

- 근로시간에 관한 3개의 표와 4개의 그림을 승인하고 웹상에 연령 그룹별로 3개의 추가 표를 발표
- 미국팀이 준비한 ISCED 3-4와 5-8 수준의 최근졸업자(1~3년 이내 졸업자)의 고용률에 관한 2개의 그림과 텍스트 박스를 승인하고, 모든 국가들은 향후에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교육수준별 NEET를 해설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15~24세의 경우 상당한 인구가 아직 학업을 마친 상태가 아니므로 해석에 신중해야 함.
- TRANS 2014의 근로시간 코드화를 검토함.
- 일·학습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
- TRANS 2015에 비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에 관한 새로운 변수를 포함하기로 함.

다. 교육의 사회적 성과(Social Outcomes of Learning; SOL) 분과

○ PIAAC SOL 지표 관련

- PIAAC SOL 지표 회귀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검토
- EAG 2014의 SOL 요약
 - 건강상태, 정치적 효능감, 신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PIAAC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육수준, 문해력과의 관계를 살펴봄.
 - 교육수준과 문해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성과가 높아짐.
 - 교육수준과 문해력 간에는 양(positive)의 상관관계가 있음.
 - PIAAC 데이터는 복잡한 표본설계와 분산계산법을 이용하여 수

- 집되어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표준오차가 과소추정됨.
 - 즉,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유의하다고 해석하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스킬을 포함했을 때와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함.
 - Public use file에서 접근할 수 없는 국가들을 포함하기 위해 OECD에서 동일한 분석을 다시 수행하기로 함.
 - EAG 2015의 출판본(printed version)에는 신뢰에 관한 한 가지 지표만 포함하기로 함.
 - 각 교육수준별로 포함된 것들을 명확히 언급하도록 함.
 - ISCED 3수준과 4수준을 구분하여 별도로 분석하고 결과를 검토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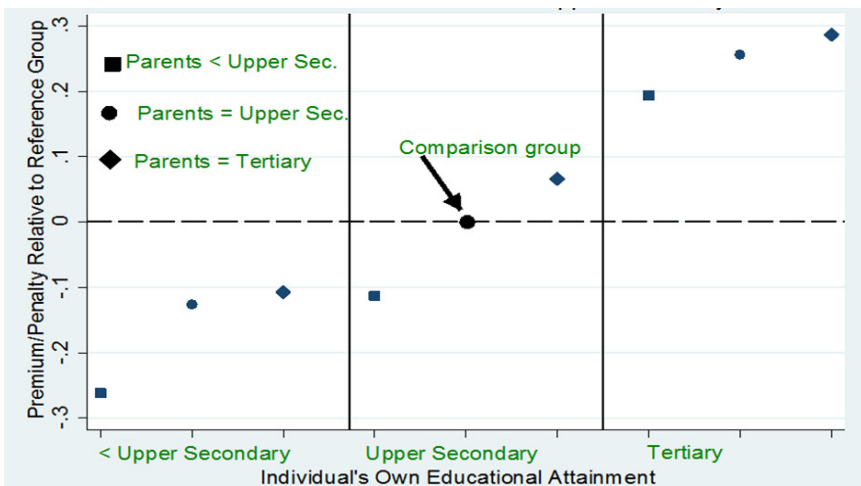
- 세대 간 교육 이동성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1세대의 특성 관련
 - 빠른 총회에서 제안에 따라 연령그룹을 나누어 추가적인 분석
 - EAG의 데이터를 해석할 때 일관된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연령별로 분석하는 것이 AI 지표들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세대 간 사회 이동성 관련
 - 부모의 교육수준 영향과 관련된 방법론과 제시 방법 논의
 - 임금, 고용상태, PIAAC 스킬(문해력과 수리력)이 EAG 출판본에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들임.
 - 모든 성과에 대한 결과표들을 만들고, 이들 중 일부는 웹상에서만

제공할 예정

- EAG 2015에 세대 간 이동성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장을 할애할 것을 제안
-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이 참여하는 소그룹을 형성하여 개발된 지표들과 문구들을 검토하기로 함.
- 사회적 이동성 분석의 주요 결과
 - 사회적 성과는 주로 자신의 교육수준으로부터 얻어짐.
 - 부모보다 학력수준이 높은 자녀일수록 소득수준, 문해력이 높고 숙련 일자리에 일할 확률이 높음.
 - 자신의 교육수준이 통제되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음.
 -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교육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이들에게는 영향력이 매우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그림 3-5] 응답자와 부모의 교육수준별 고졸 대비 시간당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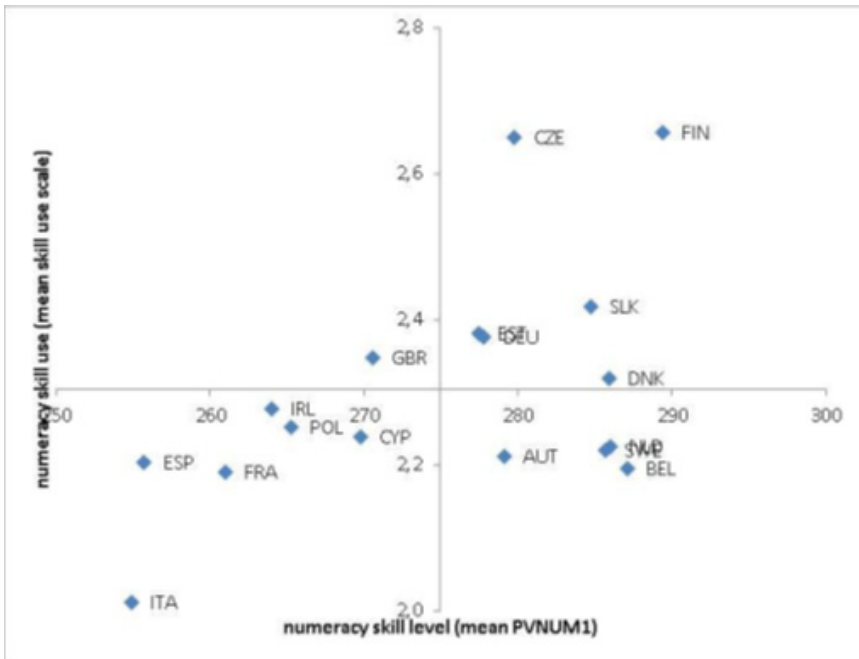
- 3차 우선순위 작업과 향후 SOL 지표 개발 관련
 - SOL 지표와 세대 간 이동성 지표에 관한 피드백을 검토
 - 많은 견해들은 지표에 관한 글을 준비할 때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분과의 이름을 ‘교육과 사회 성과’(Education and Social Outcomes)로 바꾸기로 하고, 이에 따라 EAG의 해당 장(chapter)의 이름도 바꿀 필요가 있음.
 - 향후 SOL 지표 개발을 위한 데이터 출처와 선택 사항들 검토
 - 향후 SOL 지표 개발을 위해 European Social Survey와 다른 Social survey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
 - non-ESS 국가들에 대해 데이터 이용 가능성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실시하여 9월 총회에서 결과를 논의
 - 삶의 질/건강한 삶의 영위 햇수(quality of life/health life years)에 대하여 조정된 기대 수명 지표를 위한 데이터 출처를 확인하고 가능한 사항들을 검토함.
 - PISA 조사를 사회적 스킬 개발에 관한 지표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 Gallup 자료를 교육변수와 관련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제안함.

라. 경제적 성과(Economic Outcomes; ECO) 분과

- 국가 간 차이의 통계적 신뢰성 문제
 - 교육수준과 스킬의 교차분석은 OECD 평균과 각 국가수준에서 분석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표본을 교육 및 스킬수준 등에 따라 부표본(subgroups)으로 분할함에 따라 표준오차(standard errors)는 증가
 - 일반적으로 표본을 하나의 특성에 의해 구분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표본을 둘 혹은 세 가지의 특성으로 동시에 분할할 경우 표준오차가 증가하여 국가 간 차이가 통계적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스킬 미스매치 지표 관련
- 스킬 미스매치를 측정하는 단일한 지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음.
 - 국가수준에서 스킬수준과 스킬 활용도 간의 관련도는 매우 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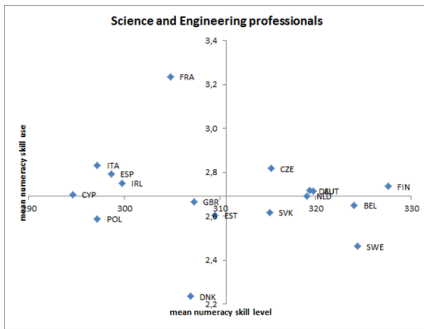
[그림 3-6] 스킬수준과 스킬의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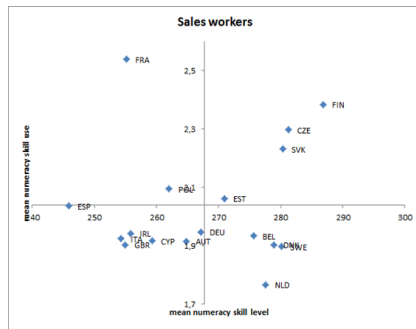
- 스킬수준과 스킬 활용도는 국가의 직업구조 격차를 반영하지 못함.
- 스킬수준이 높은 직업이 스킬의 활용도가 높음.

[그림 3-7] 직업별 스킬수준과 스킬의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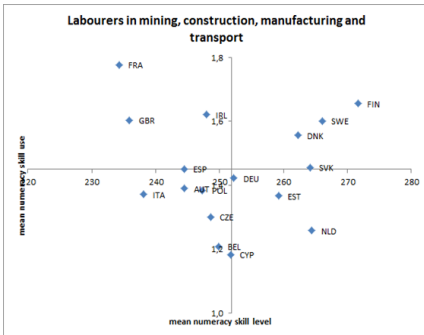
(가) 과학과 공학 전문가



(나) 판매직



(다)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송업 근로자



- 직업별로 스킬수준과 스킬의 활용도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함.
- 학력을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여 높은 스킬 수준과 낮은 스킬 활용

용률, 낮은 스킬수준과 높은 스킬 활용률을 보이는 국가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정 일자리에서의 전문화 패턴을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

○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률 지표 관련

- 전체적인 결과가 계산에 사용된 변수값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지속적인 정제(refinement) 작업이 필요함.
- 교육투자 또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할인율(discount rate)을 정하는 것이 중요함.
- 교육의 순가치를 계산할 때 고용률과 실업률을 고려하고 장학금과 대출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생애에 걸친 투자의 비용과 편익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교육의 순가치를 계산
- 교육의 순가치(Net Present Value; NPV)

$$NPV = \frac{\sum_{\text{생애기간}} (\text{편익} - \text{비용})}{\text{할인율}}$$

- 교육의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s): 교육의 순가치가 0 일 때의 할인율(discount rate)
- 할인율을 3%로 설정하여 교육의 순가치를 계산하여 공표
- 사적수익은 소득효과(earnings effect)와 실업효과로 구성
- 소득효과=순소득-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이전소득
- 실업효과는 실업급여로 측정
- 사적비용은 직접비용과 포기한 소득(forgone earnings)으로 구성됨.
- 공적수익은 소득효과(earnings effect)와 실업효과로 구성

- 소득효과=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이전소득
 - 실업효과는 실업급여에 대한 조세징수
 - 공적비용은 직접비용과 포기한 소득세로 구성
 - 향후 고용률을 고려한 수익률 계산이 필요
- 소득(Earnings) 데이터 수집 관련
- 상대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 범주로 ISCED 3을 이용함.
 - 단,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 문제로 인하여 추세 데이터의 경우 ISCED 3/4를 이용함.
 - 정책적으로 중요한 소득의 흠어짐(dispersion)에 관한 지표 개발을 시작하기로 함.
 - 2015 소득 데이터 수집 시 자영업자를 식별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제14차 총회 및 분과별 활동

1. 개요

- INES LSO 네트워크 14차 총회는 2015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벨기에 브뤼헤에서 개최됨.
 - Education at a Glance 2015의 간행을 위한 최종 과정 및 지표 검토
 - EAG 2015의 LSO 지표를 위한 ISCED 2011의 적용 검토
 - EAG의 적시성 유지를 위한 LSO 정규 자료 수집 시점 검토
 - 3차 INES 우선순위 평가 실시 결과 검토 및 LSO 네트워크에 대한 합의 점검
 - 3차 INES 우선순위 평가 실시와 관련하여(특히 고등교육의 성과에 대한 특별 프로젝트 포함) LSO의 고등교육지표 개발 점검
 - EDPC Informal Working Group on Higher Education(IWGHE)와 LSO 네트워크 간의 수평적 협력 구축을 위한 후속 활동 점검 및 추가 지침 제공
 - EAG 2016 및 그 이후를 위한 PIAAC 지표의 추가 개발 과정 점검: ICT 스킬/PS in TRE(ICT 사용자 유형, 부분별 및 직업별 ICT 사용과 스킬), 직종별 및 교육수준별 숙련수준과 분포
 - PIACC 2차 라운드 자료 공개에 대한 OECD의 접근 검토와 EAG 향후 버전에 LSO PIACC 기반 지표들의 포함을 위한 전략 채택
 - 13차 LSO 미팅의 최종 정리 내용에 기반을 둔 네 가지 Working Group(평생학습, 학습과 노동이동, 경제적 성과, 교육적 및 사회

적적 성과)의 성과 검토 및 미래 작업 방향 설정

- EAG 2016 및 그 이후에 포함되어야 할 지표들 수정
- 자료 수집 시스템 구축 및 연구 지원 필요 파악

2. INES 및 INES 관련 활동에 관한 업데이트(Update on INES and INES-related activities and update from the Network Secretariat)

- 다음 INES 관련 회의 일정과 함께 NESLI 및 INES 작업반 회의 의제 언급
- EDU 활동을 포함한 PISA와 PIAAC 연구 및 사회·고용·이주에 관한 OECD 연구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 주목
- OECD Skills Outlook 2015 언급: 청년, 스킬 및 고용 가능성과 학생, 컴퓨터 및 학습에 관한 PISA 보고서
- 최근 간행된 Education in Focus(EDIF)의 주제 주목
- OLIS 분과 회의 문서 발표, OECD Event Management System(EMS)을 통해 새로운 등록 시스템 구현 언급
- 2015년 11월 24일 발간되는 EAG 2015 언급 및 지표 A1, A5와 C5에 코스타리카와 리투아니아 포함 확인

- OECD.Stat 데이터, 지표 데이터베이스, 원데이터, ISCED-97(아카 이브), GPS 평가
- 다음 Earnings, NEAC, TRANS 자료 수집 일정 확인
- EAG 중간보고서의 표준오차 계산 승인을 위해 2015년 10월 2일 마감: 테이블 1.1, 1.2, 1.3, 3.3 및 부록 3 확정
 - 또한 EAG 2015 테이블 세트의 표준오차 계산을 위해 필요 정보 수집에 동의
- Education at a Glance 2016 임시 발간 일자 확인(과리 시간으로 2016년 9월 13일)

3. 유네스코와 2015년 이후 교육 의제와 지표(UNESCO and the post-2015 education agenda and indicators)

-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대체할 수 있는 2015 이후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지표작업과 관계된 유네스코 UIS 정보 평가 및 유네스코의 교육 목표와 지표에 대한 평가
- 새로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에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구체적인 사항을 통해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기회를 증진할 것을 함의

- 교육 목표와 관련된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와 Education 2030 Framework의 도입에 관한 전문가 회의 및 협의에 대해 논의

4. LSO Network Plan의 역할 및 우선순위(Discussion of LSO Network Plan of Work and Priorities)

- LSO 관련 지표들에 대한 3차 우선순위 평가 실행 결과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이 수행됨.
- EAG 핵심 지표가 포함된 전체 6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국가 관측
- 소득 데이터 수집에서 전일제와 파트 타임 고용 데이터를 찾을 것을 제안
- 국가들의 정책관련 평가의 일부 주요 변동을 고려하여 OECD 알고리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명확한 결론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주목
 - 더 나은 평가 가능성의 범위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술표준평가 범주를 수정할 것을 제안
- 정책과 정부의 변동을 토대로 지표의 강력한 공공의 이익과 지속적인 가치의 중요성 강조
- Q2에서 우선순위 평가에 포함된 5가지 LSO 지표를 검토: LSO 네

트위크에 있는 5개 지표에 추가 작업 지원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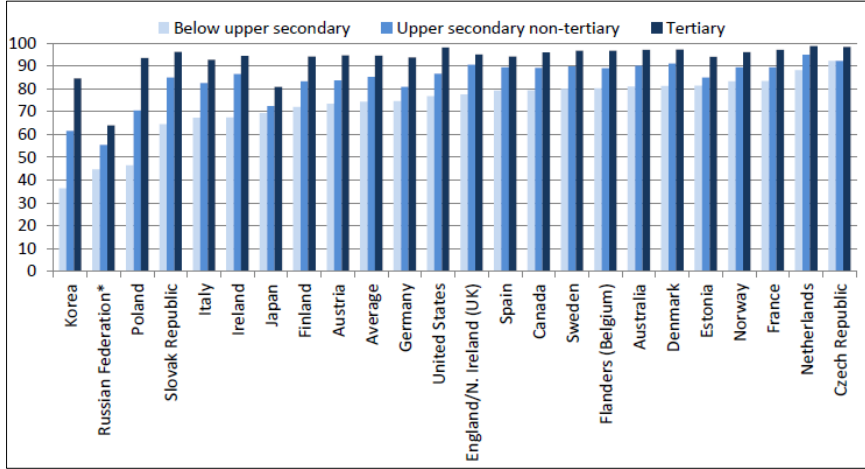
-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별 고등교육 참여: 모든 정책 적절성 기준과 모든 기술적 표준을 충족하므로, 핵심 지표가 되어야 함.
 - 다만, 최근 취합된 자료의 경우 부정기적 자료 수집에 의존하고 있음.
 - 추세 데이터 포함 인구의 상대 소득: 정책 적절성 기준의 50% 정도만 충족하지만, 네트워크에서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음.
 - 적절한 메타데이터 이용 가능성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규칙적 유지보수와 모니터링이 요구됨.
 - 숙련 일자리와 교육수준: 대부분의 기준을 거의 충족하고 있으며, Economic Outcomes Working Group를 통해 지속 발전 논의 필요
 - 학습의 사회적 성과(현재 ESO): 기술적 표준과 해석 가능성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진전
 - 공공 및 민간 순 현재가치: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지표이지만, 대부분의 LSO 미팅에서 견고하고 잘 구축된 비즈니스 플랜이 논의되었음.
- 고등교육지표, 자본의 INES WP 이익, 노동시장 성과, 고등교육의 조직에 대해 평가
-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고려하기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정보 기록 및 기존의 EAG 지표에서 ISCED 수준으로 더 세분할 것을 강조

- 고등교육에서의 자금지원 및 고등교육 시스템의 성능을 벤치마킹하고 고등교육 시스템과 노동시장의 관련성 및 결과에 대해 심층 분석 필요
- 노동시장 성과, 질, 재원조달, 거버넌스, 책무성, 국제화, 기술의 사용과 역할, 형평성과 접근 보장 등과 같은 고등교육 관련 정책 이슈 파악
- 고등교육 시스템의 성과를 벤치마킹하는 프로젝트의 배경이 되는 근거와 OECD 자료가 어떻게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확인
- 양적, 질적 평가지표의 개발 계획 언급
-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의 관련성 및 고등교육 성과의 영역에서 참여국들이 직면한 도전 파악
-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중복 수합 등 회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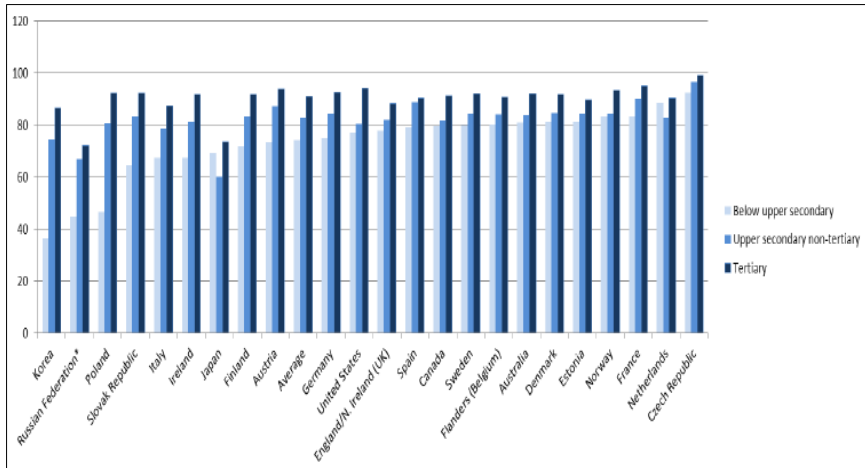
5. PIAAC 지표 개발(PIAAC indicator development)

- EAG 2016에서 직장 및 일상생활의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제안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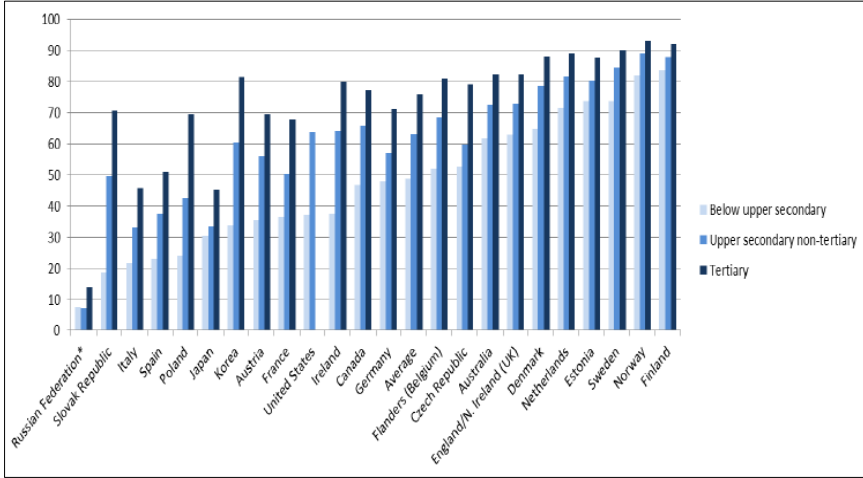
[그림 3-8] 교육수준별 월 최소 1회 이메일 사용자(Use of email at least once a month by level of education,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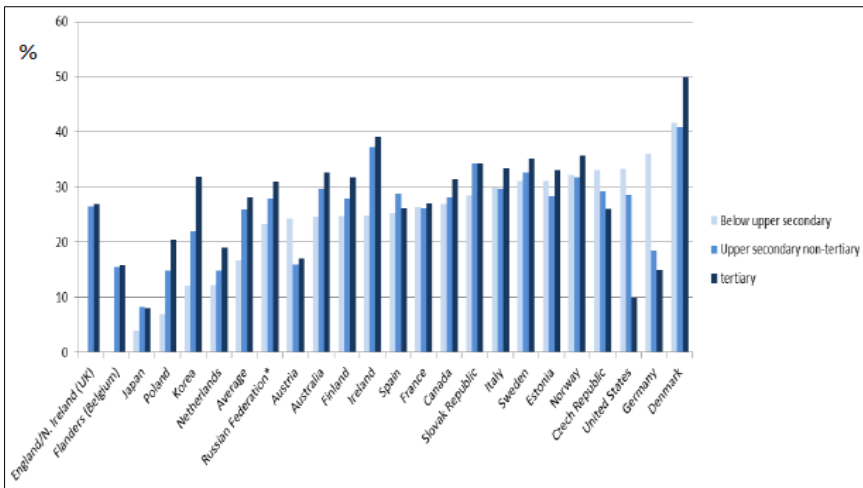
[그림 3-9] 교육수준별 월 최소 1회 인터넷 사용자(Use of the Internet at least once a month by level of education, 2012)



[그림 3-10] 교육수준별 월 최소 1회 온라인 거래 사용자(Use of online transaction at least once a month by educational level,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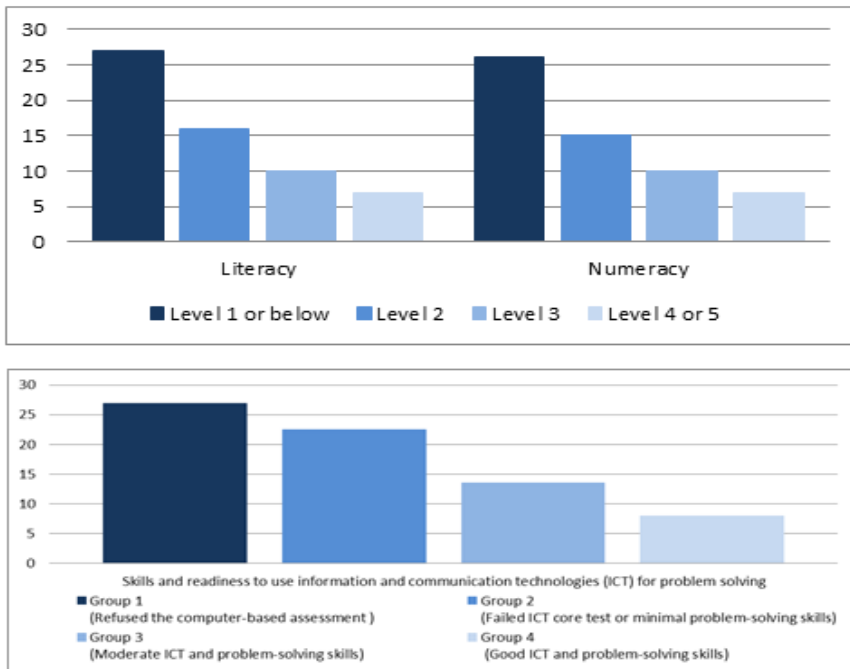


[그림 3-11] 교육수준별 월 최소 1회 실시간 토론 이용자(Use of online real-time discussions at least once a month by educational level, 2012)



- EAG 2016에서 스킬수준에 따른 청년층(16-29세) NEET 분석 제안, 데이터에 대한 결과의 일관성 및 표본크기 확보 필요성 언급

[그림 3-12] 참여국가 평균 16~29세 NEET 규모(16~29 year-olds 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NEET), average of participating countries)



자료: OECD. Survey of Adult Skills(PIAAC)(2012).

- PIAAC에서 제2주기 평가 실시: 2016년 7월 초 OECD Skills Outlook 2016에서 PIAAC 데이터 발표

6. LSO 지표에 ISCED 2011 구현(Implementation of ISCED 2011 in LSO indicators)

- NEAC와 TRANS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정보 환영, 대부분의 국가가 NEAC 또는 TRANS 설문지와 양질의 데이터를 보냈으며 데이터 제출에 있어 국가가 경험한 문제 언급
- 많은 국가는 하부 및 상부中等교육의 부분 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인정
 - 이 경우 EAG 테이블에 ‘A’(해당 사항 없음)로 표기
 - 부록 3에 각 국가의 ISCED-A 2011 코드가 있는 테이블 추가 환영
- NEAC 설문의 추가 개발 제안 및 EAG 지표와 유사한 요약 테이블이 TRANS 설문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
- 설문제에 국가별 정보의 부재와 같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최소 임계값을 사용할 것을 제안
 - OECD는 PIAAC에 관해서는 동일한 규칙을 사용할 것, ISCED 2011 구현을 계속할 것, OECD와 국가간 ISCED 매핑 문제 해결의 양자과정을 인정하고 INES 위원회에 올릴 것을 합의
- 교육 현장에서의 데이터 수집에 대해, 추가 개발이 EAG 2017 출간물을 위한 LSO 설문제에 포함될 수 있는 점이 인정

- 2016년 2월 다음 LSO 회의가 시작되며 ISCED F-2013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교육의 2자리 영역에 집중할 것을 제안
- ISCED 7수준과 8수준을 위해 교육 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제안

〈표 3-2〉 전공 영역-2수준(Fields of education at the 2-digit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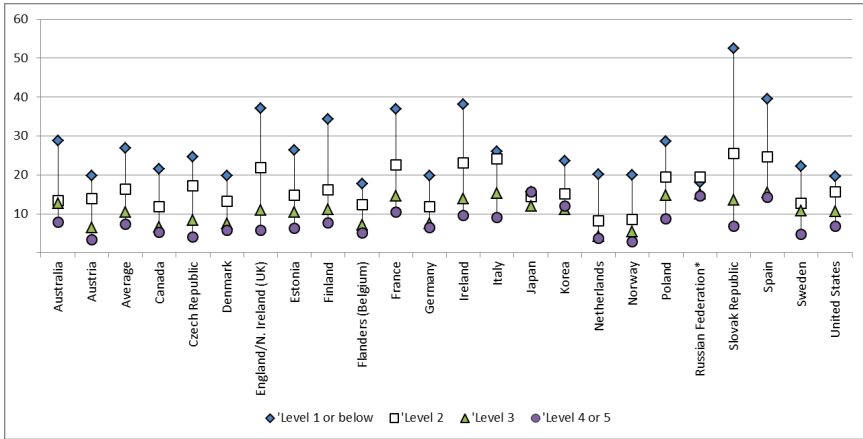
Fields of Education	ISCED-F 2013
1. Generic programmes and qualifications	00
2. Education	01
3. Arts and humanities	02
4. Social sciences, journalism and information	03
5.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04
6. Natural sciences, mathematics and statistics	05
7.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06
8.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07
9.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veterinary	08
10. Health and welfare	09
11. Services	10

7. 분과별 활동

가. 성인학습(Adult Learning; AL) 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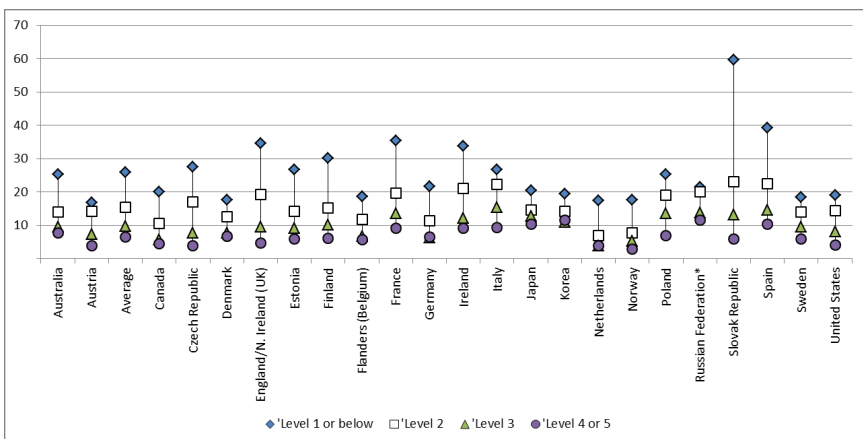
- 성인학습의 측면에서 PIAAC 데이터를 더 정교한 테이블과 차트를 요구: 가정에서의 독서활동과 언어능력 수준, 가정에서의 수리력 사용과 수리력 수준, 가정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사용과 정보통신기술 사용 준비, 언어능력학습 준비와 수준, 사회 참여, 비공식교육 시간과 활동

[그림 3-13] 언어능력 수준별 NEET 비율-16~29세(Chart NEET (L).
Percentage of NEET, by literacy proficiency(2012) 16~29 year-olds
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NEET), average of
participating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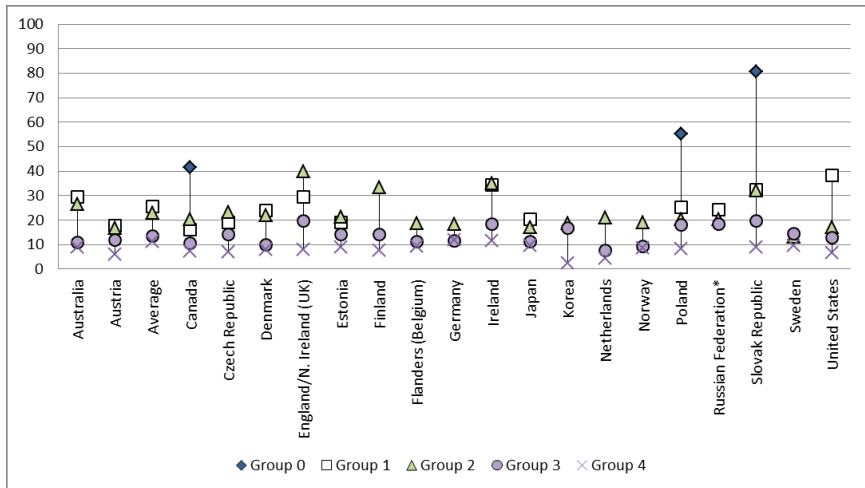
자료: OECD. Survey of Adult Skills(PIAAC)(2012).

[그림 3-14] 수리력 수준별 NEET 비율-16~29세(Chart NEET (N).
Percentage of NEET, by numeracy proficiency(2012) 16~29
year-olds 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NEET),
average of participating countries



자료: OECD. Survey of Adult Skills(PIAAC)(2012).

[그림 3-15] ICT 기반 문제해결력 수준에 따른 NEET 비율(Chart NEET (P). Percentage of NEET, by skills and readiness to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for problem solving(2012), 16-29 year-olds 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NEET), average of participating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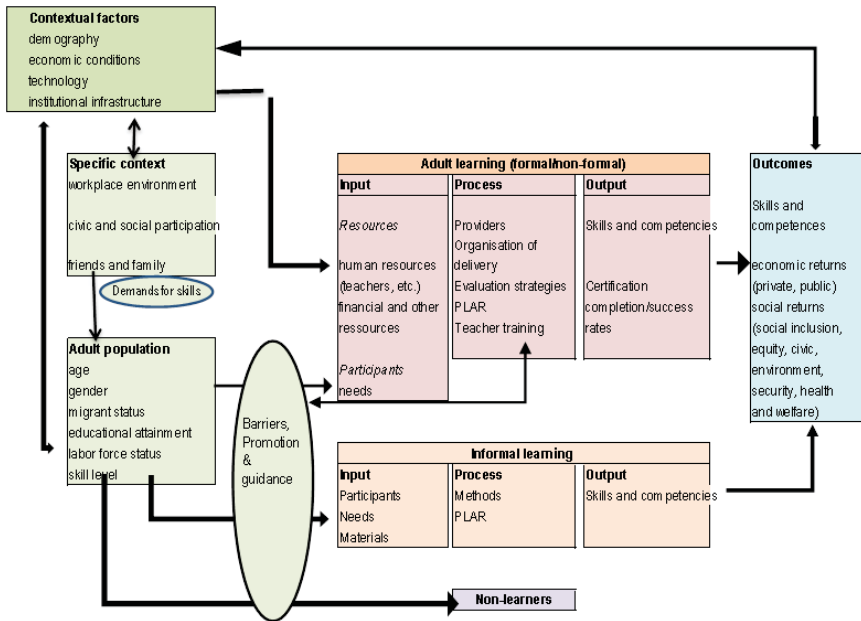
자료: OECD. Survey of Adult Skills(PIAAC)(2012).

- OECD 사무국은 EAG 2016의 지표 C6을 위한 계산에 제2차 PIAAC 국가의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언급
- AES에 포함된 부분에 관한 비ESS(European Statistical System) 국가 대상 데이터 요청의 결과를 기록: 공급자, 연구 분야, 정보와 정보 출처 검색
 - 이상한 결과를 보인 몇 개 국가에 대한 자문 승인
- 성인학습 프레임워크 연구 검토작업 프로세스의 타임라인에 대해

인급함.

- 정책 목표의 수정 목록은 2016년 9월 회의를 위해 개발될 것임.
- 2015년 11월 15일 국제 정책 페이퍼 확인
- 2015년 12월 31일 국제 정책 목표의 식별
- 2016년 2월 멕시코 회의에서 예비 목록을 포함한 1차 종합 페이퍼 마련
- 2016년 6월 국가 정책 추가 목표 정리
- 2016년 9월 포르투갈 회의에서 정책 목표의 제2차 종합 목록 마련

[그림 3-16] 성인학습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dult learning)



자료: Figure 1 adapted from(Krger-Hemmer and Editorial Group, 2012)

나. 교육과 노동시장 이행(Learning and Labour Transitions; LLT)
분과

- 프로그램 및 데이터 기능에 대한 국가 설명 평가
 - CEDEFOP에 의한 결과 데이터 수집 초안 환영 및 2016년 2월까지 이메일을 통해 제안을 논의하기로 합의
- 유행하는 지표를 강조하는 첫 번째 제안을 논의하고, 이메일 교환을 통해 UOE 책임에 대한 OECD 사무국의 제안을 개선, 추가 논의할 것을 합의
 - 일-학습 프로그램 관련, 프로그램의 정의를 관련 학습과 학생/연수생이 소득을 얻는 기간(work period)을 결합한 공식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프로그램 준수 여부를 추구할 것을 요구
- EAG 2016에서 일-학습 프로그램 관련 국가 상황의 다양성을 설명할 추가 작업이 필요
- 변수 수집에 대한 보고서 환영
 - TRANS 2015에서 근로시간 관련 임시 변수를 무시할 것
 - 비형식 교육에 추가 변수 수집하지 않을 것임.
- 수집된 메타데이터와 LFS / UOE 참여에 의한 소스 비교를 통해 정규 교육 비교 가능성을 OECD 사무국이 추가 조사할 것을 요구

- 교육 달성 수준으로서 연령 집단의 노동시장 성과 지표에 제기된 해석능력 문제 문서화 장려

다. 교육의 사회적 성과(Social Outcomes of Learning; SOL) 분과

- 교육과 정신적 건강, 교육과 행복에 대한 지표의 개발에 동의하였으며, 다음 LSO 미팅(멕시코시티)에서 지표 개발의 가능성과 시점에 대해 보고하도록 함.
 - ESS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 대상으로 정신 건강과 행복에 관한 빠른 조사를 추진해서 ESS의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에 동의
- 세대 간 교육 이동성 관련
 - EAG 2016에 부모의 이민 여부에 따른 교육 이동성에 관한 지표를 포함하는 것에 합의
 - 이전에 간행되었던 부모의 배경별 교육 이동성 지표를 PIACC 2차 조사 국가를 포함하여 EAG 2016에 재게재하는 것에 합의
 - PIACC 분석 시 샘플 사이즈 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
 - 교육 이동성 지표 개발 시 부모 유형과 교육수준을 고려, 멕시코 시티에서 있을 다음 회의에서 보고
- PIACC 2차 조사 국가들 자료의 이용 가능성 관련
 - EAG 2016에 부모의 배경별 교육 이동성에 대한 이전 간행 지표를 재게재
 - EAG 2016에 EAG 2015에서의 건강, 자원봉사, 신뢰, 정부에 대

한 발언 등에 대한 테이블을 PIACC 2차 조사 국가들을 포함하여 재 개제

- 제2차 PIAAC 데이터는 OECD 방법론에 따라 1, 2차 국가들을 모두 포함하며, 이 둘을 합쳐 새로 만들어진 평균을 사용해야 할 것임.

○ 교육과 건강 예상 수명 관련

- 교육수준별 수명에 대한 자료의 이용 곤란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지표를 발전시키기는 곤란
- EU 국가들의 장애, 건강한 삶에 대한 자료 소스로서 EU-SILC 자료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
- 장애와 건강한 삶에 대한 이용 가능한 자료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EU국가 대상 빠른 조사 실시 필요
- 완전한 건강 예상 수명 지표의 장기적 차원의 개발을 위해 교육수준별 수명 테이블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 지속 필요

[그림 3-17] 건강생활기간과 기대수명(Healthy years and life expectancy, males, 2008)



- 우선순위 평가 실행(Priority Rating Exercise; PRE) 및 향후 작업 관련
 - ESO의 PRE 분석 결과를 검토
 - 교육의 사회적 성과가 현재 정책적 적절성을 갖고 있는 나라에 대

한 소규모 리뷰나 사례 연구 필요

- 부모의 배경에 관한 교육 이동성을 통하여 ESO가 고등교육과정에서의 공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함.
- ESO의 추가적인 기여는 다음 Working Party 회의에서 검토 예정

○ 교육의 사회적 성과 틀 및 갤럽 데이터 관련

- 비인지적 스킬을 발전시키는데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스킬들이 보다 향상된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
- OECD-LSO 팀은 2016년 3월까지 갤럽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
- LSO는 OECD 통계 본부장과 의논을 통해 BLI와 갤럽 데이터가 ESO 지표 생성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확인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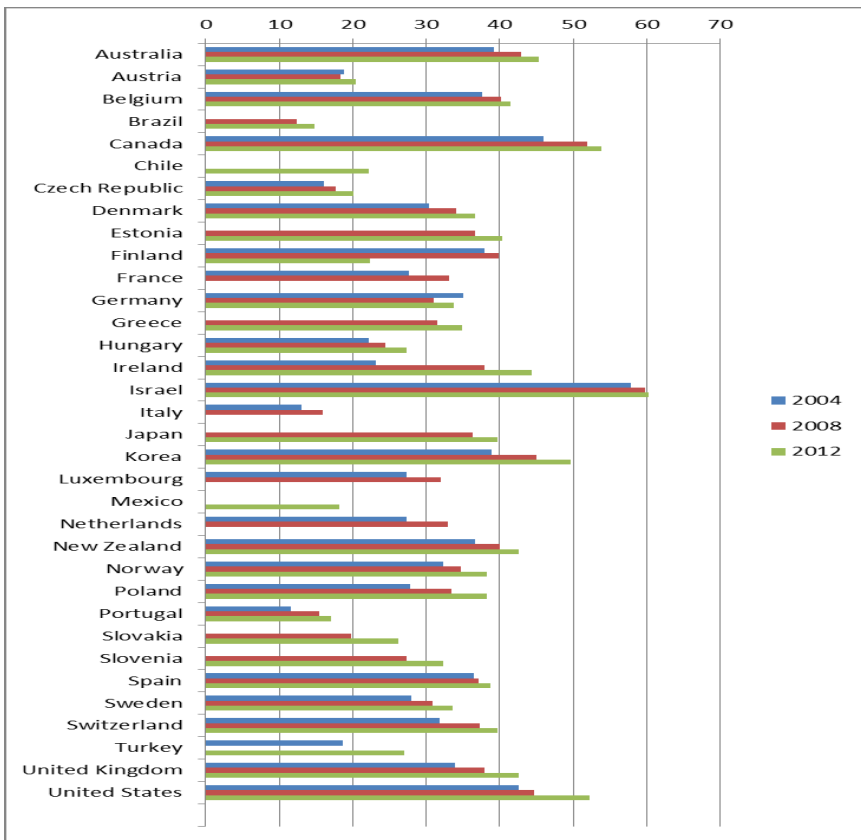
라. 경제적 성과(Economic Outcomes; ECO) 분과

○ 종단적 추적 연구 지표 생성에 대한 파일럿 연구 관련

- 졸업 후 몇 년간 ISCED 6수준, 7수준 졸업생들이 같은 나이의 중등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정도 파악 필요
- 성별과 전공별 파악 필요
- 소득 분포 파악 필요
- 젊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이후 직장들 파악 필요
- 2월에 있을 LSO 회의 전에 데이터 수집 완료해야 함.

-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면 다음 회의에서 EAG 2016에서 발표할 상대 소득에 관한 연구 초안이 논의될 예정

[그림 3-18] 고등교육 이수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집단 비율(Rate of people with earnings from work having attained tertiary level of education, Percent)



- 일자리, 스킬수준, 스킬 활용과 교육수준에 대한 프로젝트 관련
 - 스킬수준, 스킬 활용과 교육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직업 간 차이

와 산업 간 차이 그리고 국가 간 차이에 의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EAG 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 이러한 분석은 지나치게 복잡할 수 있음.
- 다음 회의에서 더 통합된 분석 방법으로 지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

○ 교육의 노동시장 수요에 관한 분석 결과 관련

- 다음 미팅에서 그 결과를 EAG 2016에서 어떻게 취합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

○ 소득 지표 관련

- 상대적 소득 지표와 관한 투명성을 더 늘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 EAG 2016부터 실질 소득을 부록에 실기로 함.
- 다음 회의에서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이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교육투자수익을 보여주는 지표 관련

- EAG 2016의 연구에서는 세부 항목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한 표를 추가할 예정
-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투자의 순현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ISCED 3수준을 준거가 되는 항목으로 만들 예정
- EAG 2016에서는 정부 보조금도 계산에 포함될 것임.
- 소득의 평균에 대한 조정과 학자금 대출의 추가가 지표의 강건성

(robustness)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 뉴질랜드와 호주가 학자금 대출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뜻을 확인
- ISCED 5수준과 6-8수준별 수익을 제시할 필요성을 뉴질랜드가 제안
- 미국이 제시한 분석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전공 분야별로 순현재가치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
- 순현재가치의 타당성과 해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산에 포함되는 요구수익률(나라마다 상이할 것으로 보이는)을 고려할 필요성이 언급되며, 이것을 중기 개선 영역으로 고려함.
 - 첫 번째 단계로, OECD 사무국은 네덜란드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다음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제안을 발표할 예정
- 프랑스가 제안한 순현재가치와 수익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모델 개발을 지지하지만, 이러한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함을 확인
- OECD 사무국은 각 국가가 스스로 이러한 부분을 측정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

8. 네트워크 조직 및 자원 할당의 검토(Review of Network organization and allocation of resources)

-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활동에 동의
 - 최근 졸업생(ECO 워킹 그룹)의 소득에 대한 데이터 수집
 - ESO 워킹 그룹 지표 개발을 위한 비슷한 자료를 얻기 위해 유럽 사회 조사(ESS)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의 데이터를 수집: 교육,

정신 건강, 행복

- 활동 제한에 대한 유럽의 소득 및 생활 조건 조사(EU-SILC)의 정보와 일치하는 비유럽 국가 데이터 수집

- 기획위원회에 개인 또는 기관과의 계약에 대한 네트워크의 결정을 실행하고, 네트워크를 대신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선택 및 프로세스와 관련된 의사 결정 책임을 위임

제4장

청년 니트 문제에 대한 접근 - OECD 국가와 한국

제1절 도입

제2절 OECD 국가의 청년 니트 정책

제3절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 정책

제4장 | 청년 니트 문제에 대한 접근 - OECD국가와 한국

제1절 도입

- 본 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의 청년 니트 현황과 이에 대한 각국의 대처 방안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 현황과 관련 정책을 소개함.
- OECD 국가의 경우, 청년 니트가 주로 저학력 청년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학교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청년 니트가 대졸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도 학교교육보다는 고용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OECD 국가의 청년 니트 현황과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 현황 및 청년 니트 대책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니트 관련 대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제2절 OECD 국가의 청년 니트 정책

1. 청년 실업과 니트족의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OECD 국가들의 경제 및 고용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금융위기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시장의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2015년 1월 기준 OECD 평균 실업률은 7%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2월의 5.6%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
- 청년층에서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OECD 회원국의 청년층(16~29세) 고용자 수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750만 명이상이 감소
 - OECD 회원국들의 청년(15~24세) 실업률은 2014년 4사분기를 기준으로 스페인 50.9%, 그리스 50.6%, 이탈리아 41.2%, 포르투갈 33.6%, 슬로바키아 27.8%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지속은 청년기의 직업 기회뿐 아니라 그들의 장기적인 직업 경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인데, 이는 대학 진학률 증대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더 근본적으로는 많은 OECD 국가들의 경우 청년 니트

족(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NEET)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2012년 기준 OECD 국가 내에서 16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인구 중 니트족은 2007년 이후 250만 명(7% 증대)이 늘어나 총 3,840만 명에 이르며, 이는 OECD 전체 청년층 인구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
 - 이들 니트 청년층 중 66%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전혀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니트족(비경활 니트족, inactive NEET)이며, 85%는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청년들임.
-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청년층 고용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특히 니트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위한 정책은 OECD 국가들의 주요 정책 관심 대상이 되어 왔음.
- OECD 국가들의 니트족 노동시장의 현황, 특성, 생활 여건 그리고 회원국들의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워킹페이퍼 형태로 2015년 2월에 발표
 -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의 고용 상황의 변화 추이를 정리하고, 니트족의 특성과 생활 여건을 살펴본 후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OECD 회원국들의 관련 정책을 살펴봄.

2.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의 노동시장 여건

-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
-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즉 전체 청년층 중 고용 중이거나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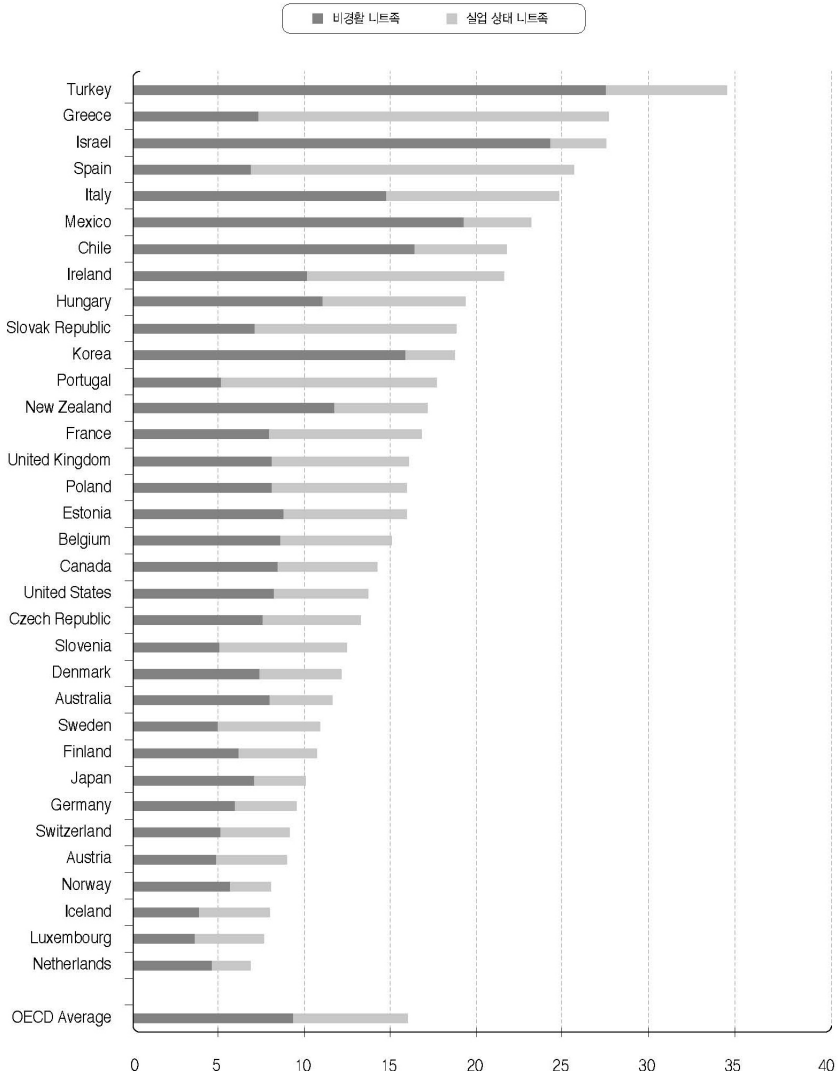
직활동 중에 있는 청년 비중은 OECD 평균 56%

-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호주 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0%가 넘는 국가에서부터 한국, 이탈리아, 일본 등과 같이 45% 이하인 국가들도 있어 국가 간 편차가 나타남.
- 2007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에스토니아, 미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줄어들었으며, OECD 국가 평균으로는 동 기간 동안 2%p가 감소

○ 비경활 및 실업 상태의 니트족

- 많은 OECD 국가에서 청년층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 저하는 니트족의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니트족은 금융위기의 타격을 크게 받은 국가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리스, 터키의 경우 16~29세 청년인구의 30% 이상이 니트족이며 이스라엘, 멕시코,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니트족 비중이 20%가 넘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경활 니트족의 비중이 높아 OECD 평균으로는 전체 니트족 중 58%가 비경활 그룹에 속함.
-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터키의 경우에는 비경활 니트족 비중이 전체 니트족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니트 청년 5명 중 4명 정도가 구직활동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 OECD 국가들의 비경활 및 실업 상태의 니트족 구성 (2011/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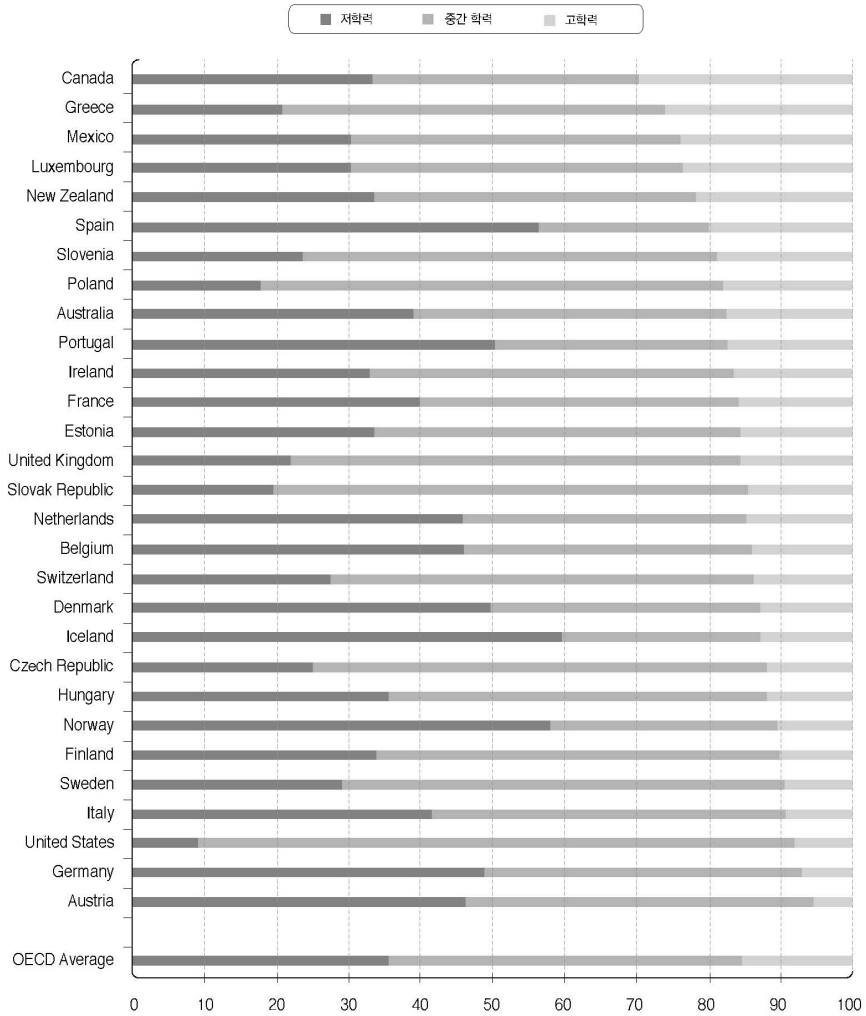
자료: Carcillo, S. et al.(2015)의 Figure 1 중 일부

- 금융위기와 청년 고용의 변화
 - 2007년과 비교하여 2012년 기준 OECD 청년 고용자 수는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하락하여 OECD 평균 9%가 떨어졌는데, 청년층 고용률 저하는 대부분의 경우 중등 이하 또는 중등교육 이수 청년층에서 나타났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고용 추세를 유지하거나 어떤 국가에서는 고용률이 증가한 경우도 있었음.
 - 슬로바키아의 경우 전체 청년 고용은 2007년 비교하여 2012년에 23%가 감소했는데, 고등교육 청년들의 고용률은 같은 기간 동안 3%p가 증가
 - 금융위기 이후 청년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경우에는 고등교육 이수 청년층의 고용률도 동시에 떨어짐.
 - 청년 고용이 13% 상승한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고용률 상승은 중등 및 고등교육 이수 청년층에서 이루어졌으며, 저학력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2%p 하락
 -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저학력 청년층에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

3. 청년 니트족의 특성 및 생활 여건

-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청년층 니트 중에 중학교 이하의 교육 수준을 지닌 저학력 청년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그림 4-2] OECD 국가 니트 청년층의 교육수준 구성(2012년 기준)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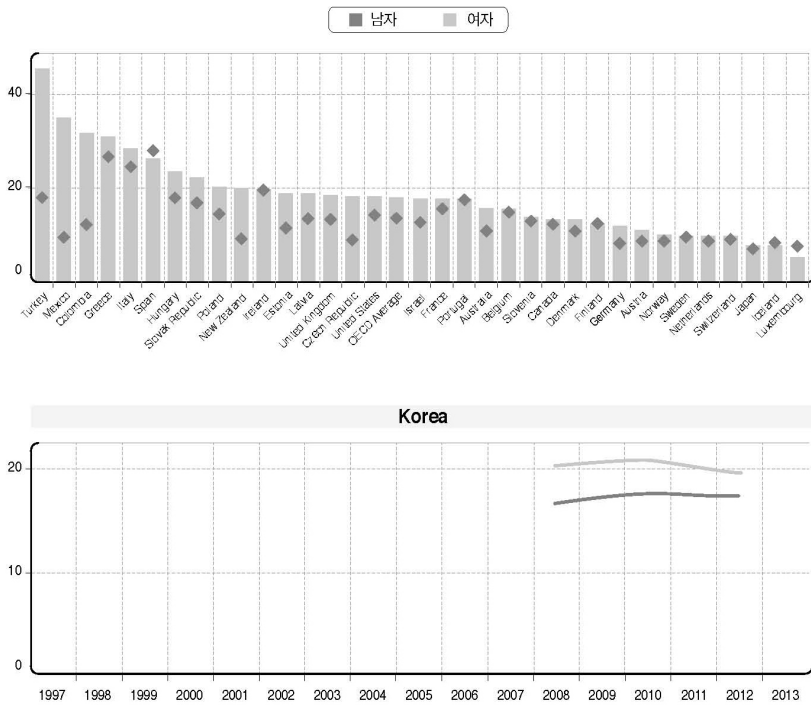
자료: Carcillo, S. et al.(2015)의 Figure 4 중 일부

3) 저학력: 중학교 교육 이하, 중간 학력: 고등학교 교육 이상 대학 교육 이하, 고학력: 대학교육 이상 이수

- 니트족 중 저학력(중학교 교육 이수 이하) 청년의 비중은 OECD 평균 36%이며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페인의 경우에는 50% 이상을 차지
 - 청년층 니트 중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 이수 비중은 OECD 평균 15%에 불과하며,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인 그리스나 캐나다의 경우에도 각각 26%, 30% 정도
 - 이는 스킬수준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수준이 청년층의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 금융위기 이후 전체 니트 청년층 비율이 증가하면서 니트족 중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층 비중이 증가
- 니트족 중 적어도 고등교육 기회를 경험한 청년층 비중이 OECD 평균 2007년 13%에서 2012년 15.4%로 2.4%p가 증가
 - 그리스, 슬로바키아, 멕시코,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6~7%p 정도가 증가
 -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니트 청년층 중 고학력자 비중이 1~2%p 감소
- 16~29세 니트 청년층의 연령 구조를 나누어보면 25~29세 청년층 비중이 OECD 평균 45%로 가장 높으며, 16~19세 비중은 16%에 불과
-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긴 하지만 10대 니트족들에게는 특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 금융위기 이후 20대 니트족 비중이 더 증가했는데, 이는 금융위기

- 이후 니트족 중 고학력 비중이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
- 스페인, 에스토니아의 경우에는 10대 니트 비중이 각각 10%p, 8%p 하락했고, 25~29세 니트 비중이 5.5%p 정도 증가

[그림 4-3] OECD 국가 니트 청년층(15~29세)의 성별 격차(2013년 기준)⁴⁾



자료: OECD Gender Equality 웹사이트, www.oecd.org/gender/data

4) 우리나라 자료는 2012년 기준임.

- 니트 청년층의 성별 격차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니트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기준으로 여성과 남성 청년 니트 비중 격차는 OECD 평균 5%p
 - 터키, 멕시코, 칠레의 경우 여성 청년 니트 비율이 남성 청년 니트 비율의 2~3배에 달함.
 - 한국의 경우에도 청년층 중 여성의 니트 비중이 남성의 니트 비중보다 높아 2008년을 기준으로 남성 16.7%, 여성 20.3%에서 2012년 기준으로 남성 17.4%, 여성 19.5%를 나타냈으나, 동 기간 동안 여성들의 니트 비중이 줄어들면서 니트 청년층의 성별 격차는 오히려 감소

- 스웨덴을 제외한 통계가 제공되는 모든 OECD 국가에서 니트 청년층은 교육이나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층에 비해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니트 청년층이 나머지 청년층에 비해 6배 정도가 높음.

- 니트 청년 자신의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의 교육수준과 니트족이 될 가능성 사이에 상당한 연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모든 OECD 국가에서 니트족 부모들의 최고 교육수준이 나머지 청년층의 부모들의 최고 교육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들의 교육수준이 자녀들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

거나 또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더 높음.

- 또한 니트 청년층 중 편부모 비율이 전체 청년층의 편부모 비율에 비해 거의 3배에 이르는데, OECD 평균 니트 청년층의 3%는 편부모임.

4. 니트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 특별학교 프로그램

- 니트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의 중도 탈락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 중의 하나임.
- 취약한 그룹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특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에서 조기에 이들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
- 학교에서는 중도 탈락의 우려가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인지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식 축적을 높이며, 생애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 학교에서의 특별 프로그램 운영 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극도로 취약한 계층의 그룹에게는 학급 규모를 줄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특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방안, 기존의 교육과정에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부가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음.
- 미국에서 소위 ‘차터스쿨’로 불리는 학교들은 인근에서 양질의 공립학교에 재학할 기회가 없거나 전통적인 프로그램이 잘 맞지 않는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

○ 정규 학교에서의 지원 프로그램

- 특별학교 프로그램 운영하기에는 규모가 적정하지 않거나 특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정규 학교교육 내에서 적기에 그들만을 위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개선
-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내의 지원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미국의 QOP(Quantum Opportunity Program)의 경우 성취수준이 낮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학력의 학생들에게 1년간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한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키고 졸업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
- 나이가 어릴 때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10대나 20대 때의 성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효과적

○ 멘토링 프로그램

- 많은 OECD 국가에서 대체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부모가 아닌 멘토 성인들이 자존감, 위험 행동, 사춘기의 삶의 질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성과 및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포르투갈은 중도 탈락 위기에 있는 13~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인지 역량 향상을 위한 ‘Entrepreneurs for Social Inclusion programme’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Qualifications

and Connections programme'을 통해 중등학교 첫 해인 16세의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4년 동안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다음 단계의 교육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

- 미국의 'Big Brothers Big Sisters of America'는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멘토링 프로그램의 하나이며, 미국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500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기 프로그램에만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음.

○ 도제제도

- 도제 시스템은 직장 내 훈련과 형식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상당한 초기 직장 경험을 쌓으면서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제도로 거론되며, 도제 제도를 통한 직장 경험은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비인지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독일에서는 도제 교육을 끝낸 이후 그 직장에 남을 확률이 60%에 이릅니다.
- 도제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규 시스템 내에서 도제 기관을 찾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도제와 유사한 훈련 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중도 탈락의 위험성이 높은 학생들이 직업훈련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내에 도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
- 미국에서는 30년 전에 'Career Academie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이나 고용으로 이동하는 것을 준비

○ 재도전 프로그램

- 재도전 프로그램은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이들 프로그램은 읽기 및 수학에 관한 추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기초 교육과 역량 개발 훈련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이수 후 지원, 주거 및 이동 수단 서비스, 오리엔테이션과 동기 부여를 위한 개인별 코칭 서비스까지를 포함
- 미국(Job Corps), 칠레(Jovenes), 프랑스(Ecole de la deuxieme chance), 캐나다(Employability Improvement Programme) 등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

○ 고용보조 프로그램

- 중등교육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민간 부문의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공공 부문에서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두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들 프로그램은 채용과 동시에 수개월 동안 지불할 수 있는 임시적인 임금 보조금으로 특히 실업률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시행
-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숙련 청년층의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에서 임시직을 제공하는 것을 시행
- 이들 프로그램의 논리적 배경은 단기간의 공공 일자리를 통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낮은 가장 취약한 계층

의 청년들에게 노동시장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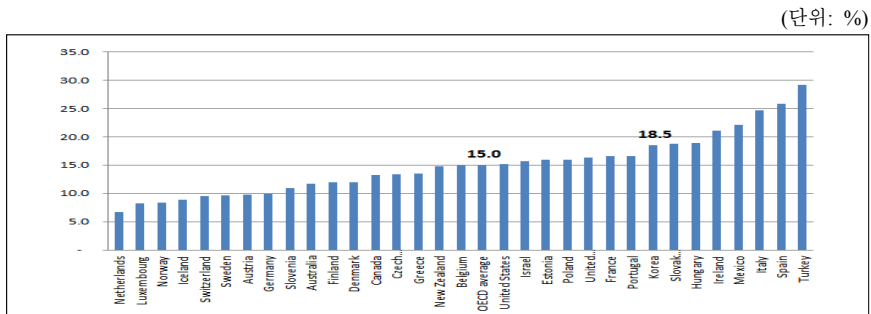
- 스웨덴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러한 일시적인 공공 일자리 제공은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끝난 후 고용 기회를 지속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음.

제3절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 정책

1. 청년 니트의 실태

- OECD 보고서(2014)에 따르면 한국의 니트(15~29세) 비중은 18.5%로 회원국 중 8번째임(OECD 평균 15.0%).

[그림 4-4] 청년층의 니트 비율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 멕시코(22.0%), 이탈리아(24.6%), 스페인(25.8%), 터키(29.2%) 등이 청년 니트 비율이 높은 국가이며, 이들은 우리나라보다 경제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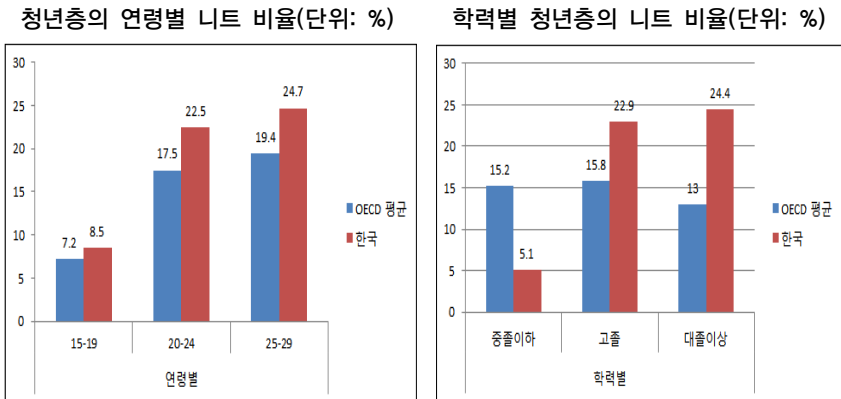
등 참가율이 높음에도 더 높은 니트 비율을 보임.

- 현행 OECD 니트 정의는 정규 교육 참여자와 고용된 이들만을 니트 인구에서 제외하여, 사설학원 등 비형식 교육 참여가 광범위한 우리나라의 청년층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 제기

○ 또한 우리나라는 20대와 대졸 이상 고학력 청년 니트 비율이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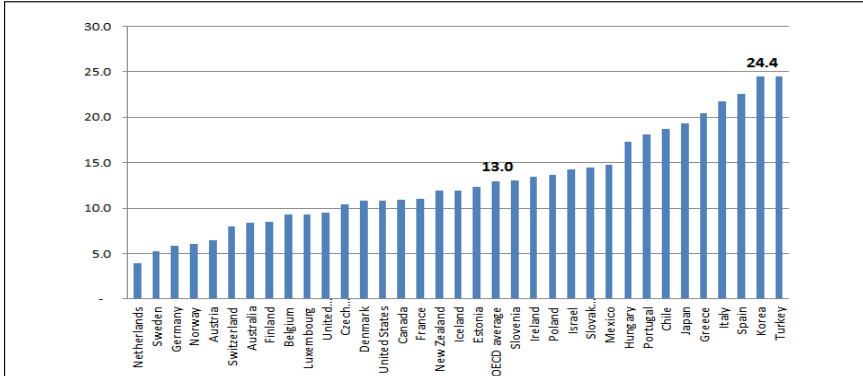
- 대졸 이상 청년 니트 비율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터키(24.5%)가 유일

[그림 4-5] 연령별·학력별 청년층의 니트 비율



[그림 4-6] 대졸 이상 청년층의 니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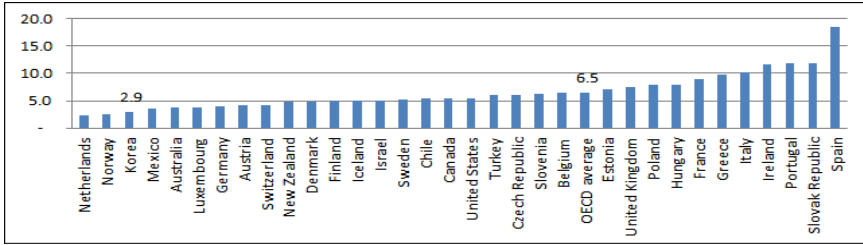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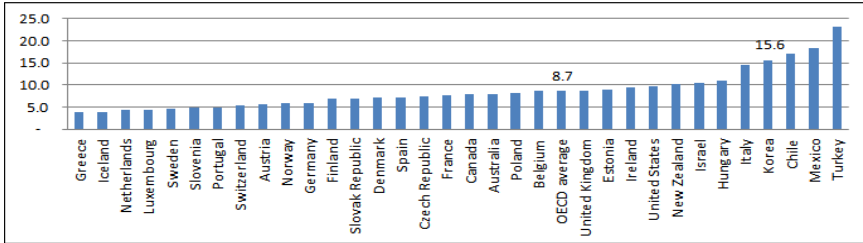
- 특히 우리나라는 구직활동(경제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이 15.6%로 회원국 중 4번째(OECD 평균 8.7%)로 높음.
- 이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않고 실태 파악도 어려워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음.
- OECD 니트 정의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자’와 ‘비경활자’로 구성되는데, OECD 평균으로 실업자 니트는 6.5%, 비경활 니트는 8.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실업자 니트 2.9%, 비경활 니트 15.6%임.

[그림 4-7]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실업자와 비경활 비율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실업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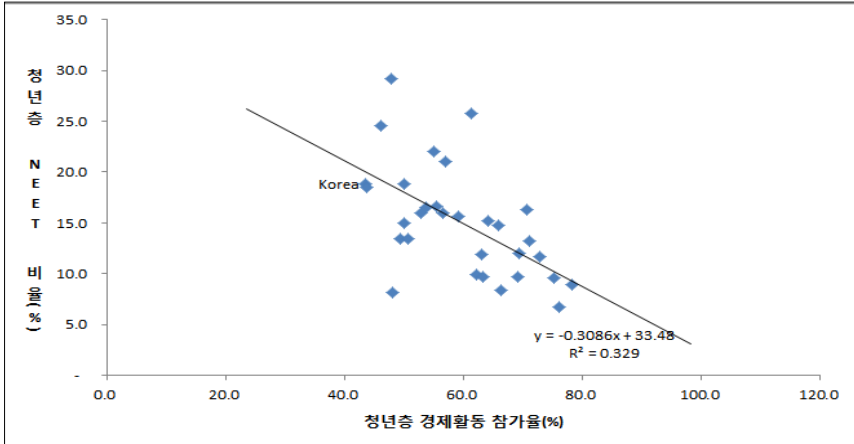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비경활 비율〉



-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니트 비율이 높음.
-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43.7%로 OECD 평균(59.2%)보다 매우 낮은 반면, 교육 참여율은 46.5%로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48.8%)에 비해 높지 않음.
- OECD 주요국의 경우 높은 교육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결코 낮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기(15~29세) 평균 7년간의 교육기간 중 6.2년은 전업학생으로, 0.8년은 취업과 병행하여 교육 받는 반면, OECD 평균은 청년기의 평균 7.3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 중 5.3년은 전업학생 2년은 취업과 병행하여 교육받는 것으로 나타나 OECD 주요국들은 일·학습병행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

[그림 4-8]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과 니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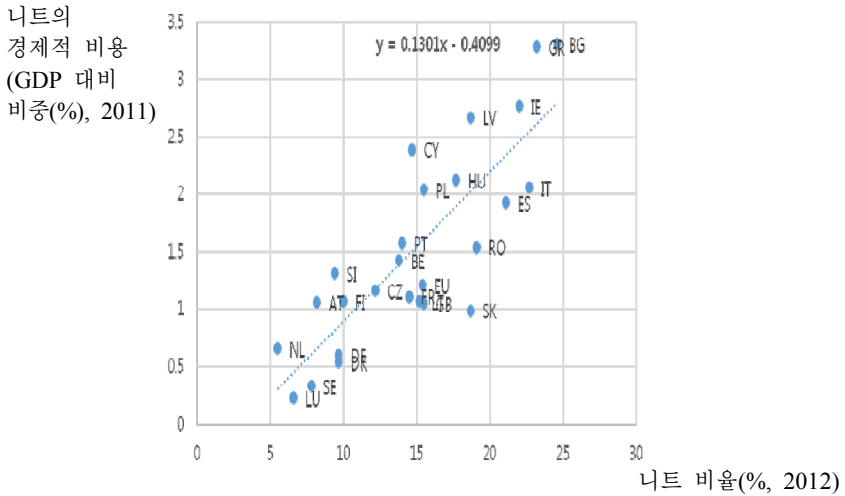


- OECD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사설학원 등을 이용한 장기적인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거나 구직단념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청년 니트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취업의사를 고취시키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

- 니트의 경제적 비용(2011년)은 EU 26개국 평균 GDP의 1.21%에 달함.
 - EU 26개국 전체적으로는 총 1,530억 유로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
 - 이 중 실업급여, 교육 관련 수당 등 정부 재정비용은 109억 유로, 니트의 상실된 소득 등의 비용은 1,421억 유로로 추정(니트 1인당 경제적 비용은 10,651유로 수준)

- EU 국가 간 정부 재정지원 정도나 소득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니트 비율과 니트의 경제적 비용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
- 우리나라에도 이 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의 니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GDP의 1.91%에 달할 것으로 추정(2014년)

[그림 4-9] 니트 비율과 니트의 경제적 비용 간의 관계



자료: EU(2012)

주: AT 오스트리아, BE 벨기에, BG 불가리아, CY 사이프러스, CZ 체코, DE 독일, DK 덴마크, EE 에스토니아, ES 스페인, EU 유럽 연합 26개국 평균, FI 핀란드, FR 프랑스, GR 그리스, GB 영국, HU 헝가리, IE 아일랜드, IT 이탈리아, LT 리투아니아, LU 룩셈부르크, LV 라트비아, MT 말타, NL 네덜란드, PL 폴란드, PT 포르투갈, RO 루마니아, SE 스웨덴, SI 슬로베니아, SK 슬로바키아

2. 우리나라의 니트 정책 현황

- 청년 고용 지원 정책
 - '03년 청년 실업 종합대책 첫 발표 이후, 청년 고용 촉진대책('05년, '08년),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10년, '11년),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 대책('14.4월), 청년 고용질벽 해소대책('15.8월) 등을 통해 취업인프라 구축,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청년 대상 주요 대책으로는 청년인턴, 직업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캠프,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음.
 - 현재의 청년 고용정책은 구직의사를 가진 청년 중심임.
 - 청년 니트가 명시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고용지원서비스로서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고용노동부, '16년부터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로 개편)

〈표 4-1〉 청년층 고용지원 공공서비스

시기	주요 내용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기회 제공 ▪ 기업에 인턴기간 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월 65만 원 지급
글로벌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취업에 필요한 어학 및 직무 관련 연수 ▪ 연수비로 교육기관에 1인당 평균 450만원 지원
청년취업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사업주단체 주도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 교육 과정 제공 ▪ 수료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 연계, 재학생 학점 인정 ▪ 1인당 평균 347만원 지원(기업-사업주단체 20% 매칭)

<표 계속>

시기	주요 내용
청년직장 체험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3개월 이내 직장체험 지원 ▪ 청년 월 40만원, 연수기관 1인당 월 5만원 지원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일간 지방 강소기업 탐방기회 제공 ▪ 운영기관에 1인당 6~14만 원 지원
직업체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일간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운영기관에 1인당 6~14만원 지원
취업캠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강의, 진로상담, 모의면접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운영기관에 1인당 6~14만원 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I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1단계(진단을 통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2단계(직업훈련 및 인턴십 등 의욕·능력 증진)→3단계(집중취업알선) 등 종합적 취업지원 ▪ 참가자에 참여수당 및 직업훈련비 등 지원

○ 위기 청소년 대상 정책

- 만 15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숙시설을 갖춘 기관에서 6개월 이상 맞춤형 훈련 제공하는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취업사관학교’ 운영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 청소년(9~24세)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예체능 활동,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하는 ‘학업중단 사전예방’ 정책

제5장

결론

제1절 사업 내용 요약

제2절 당면 현안

제5장 | 결 론

제1절 사업 내용 요약

- 이 사업은 한국을 대표하여 OECD INES 교육성과(LSO)의 국제지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 최종적 목표는 OECD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대표적 교육통계 자료집인 『Education at a Glance(EAG)』에 활용되는 교육의 노동시장 및 사회적 성과지표 개발에 활용되는 한국 통계를 분석하여 가공·제공하는 것임.
- EAG의 지표는 기본적인 공통적인 지표와 함께 매년 새로운 지표가 발굴·추가되는데, 이 논의는 매년 2회 개최되는 총회 및 분과별 회의에서 결정됨.
- EAG 2015를 위한 기본 통계자료의 검증
 -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A6) 지표 검증

- 학교에서 직장이행 단계의 15~29세 청년층 현황(C5) 지표 검증
- EAG 2016를 위한 기본 통계자료의 생성 제공
 - NEAC 데이터와 TRANS 데이터 생성 제공
- 연 2회 OECD INES LSO 네트워크 총회에서 4개의 지표 개발 분과 회의에 참석하여 지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나라의 데이터 제공 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
 - 13차 총회 노동시장 이행 분과에서 현행 NEET 비율에 대하여 이전 총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 EAG 2016에서 비정규 교육(non-formal education)을 반영한 지표를 게재하기로 함.
- OECD LSO 각종 통계 및 EAG 내용과 총회에서 논의된 국제적 현안에 대해 국제비교 워킹페이퍼 작성 및 출간(예정)
- OECD LSO 총회 원내 공유회의 개최(예정)
 - EAG 2015에 새롭게 소개되는 지표들의 소개
 - 13차 및 14차 INES LSO 네트워크 회의(칠레 및 벨기에 개최)에서 발표된 내용 중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연구내용들을 소개
 - PIAAC 학술대회 참가예정자들과 연구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자료 제공

제2절 당면 현안

1. NEET 관련 현안

- EAG 2015까지 NEET 통계는 학원 등 비형식 교육 참여자를 NEET 비율에 포함하여 왔음.
 -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대안은 TRANS 데이터를 제공할 때 지난 주의 주된 활동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정규 학교를 다니는 것 외에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취업준비, 진학준비 등을 모두 ‘취학 중(in education)’으로 분류하여 제공하자는 것임.
 - 교육부의 입장은 OECD LSO의 매뉴얼을 준수하라는 것임.

- 12차 총회 노동시장 이행 분과에 참석하여 NEET 비율 관련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
 - 현행 NEET 비율은 정규 교육(formal education) 중 혹은 고용되어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 모두 NEET에 포함됨.
 - 우리나라는 비정규 교육(non-formal education) 기관에 다니면서 인적자본을 개발 중인 청년층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들을 비활동(inactive) 청년층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
 - 영국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이라 우리의 의견에 동의함.
 - LSO의 입장은 이들이 다니는 기관의 질이 충분하다면 ‘교육 중’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
 - EAG 2015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EAG 2016부터 비정규 교육

(non-formal education)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바로 시작하기로 함.

- 각 국가별로 비정규 교육에 참여 중인 청년층의 규모를 먼저 파악하기로 함.

- 13차 총회에서 NEET 비율에 비형식 교육 참여자를 제외하기로 함
향후 예측되는 시나리오
 - 12차 총회 이후에 OECD 자체적으로 검증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다른 국가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
 - EAG 2016부터 우리나라의 요구를 받아 비형식 교육 참여자를 NEET 비율에서 제외하기로 함.
 - NEET 비율이 현재보다 약 3~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 통계청의 국제기구 통계 제공에 대한 제한

- 통계청은 2014년부터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를 공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2014년 공문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각 기관에 전달하였고, 2015년 이를 법령으로 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2015년 OECD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계청과 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였음.
 - 협의 과정에서 OECD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통계청이 직접 검증하여 일부 자료에 대한 자료 제공을 거부함.

- EAG 수록 원자료가 통계청에서 생성하는 자료이고, 통계청의 자료 제공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통계청 자료 담당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또한 필요하다면 ‘자료 제공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3. 새로운 지표 개발 참여

- 현재 사업의 목적에는 OECD LSO의 새로운 지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규 지표 개발을 위한 원자료 제공이 포함됨.
- 현재 LSO에서는 신규 졸업 청년층 노동력 조사를 활용한 지표 개발 프로젝트와 신규 대졸자 조사를 활용한 지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
- 해당 프로젝트들은 각각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로 원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해당 자료들을 사용한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통계청에 문의하였으나, 통계청의 입장은 어떠한 신규 지표 개발에도 참여하지 말라는 것임.

- 새로운 지표 개발 참여를 사업의 목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나영선 외(2013). 『OECD INES 교육성과(LSO) 네트워크 사업』,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박천수 외(2012). 『OECD INES 교육성과(LSO) 네트워크 사업』,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11). 『OECD INES 교육성과(LSO) 네트워크 사업』, 한
국직업능력개발원.
- 양정승 외(2014). 『OECD INES 교육성과(LSO) 네트워크 사업』,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최지희 외(2010). 『OECD INES 교육성과(OL) 네트워크 사업』,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9). 『OECD INES 교육성과(OL) 네트워크 사업』,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통계청(2014). 『제1차 개정 한국표준교육분류』.
- Carcillo, S. et al.(2015). “NEET Youth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Challenges and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64, OECD Publishing,
Paris, DOI: <http://dx.doi.org/10.1787/5js6363503f6-en>.
- Hair, J. F., W. C. Black, B. J. Babin, R.E. Anderson and Tatham,
R.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n, New Jersey:

Prentice-Hall Inc.

Humburg, Martin, Rolf van der Velden, and Annelore Verhagen
(2013). The Employability of Higher Education Graduates: The
Employers' Perspective, European Union.

McFadden, D. (1974). Conditional logit analysis of qualitative choice
behavior, In: P. Zarembka(ed.), *Frontiers in Econometrics*, New
York: Academic Press, 105-42.

OECD(각 연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2015). Youth not in education or employment(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Accessed on 30 March 2015).

UNESCO(2012).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2011.

부 록

1. 통계청 협의 자료

〈부록 1〉 통계청 협의 자료

INES LSO 사업 개요

1. 사업의 개요

□ OECD 교육성과 지표 개발 및 발간에 참여

- 인적자원이 경제적·사회적 의미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주요 통계들을 국가수준에서 비교하기 위한 지표들을 개발하여 국제통계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음.
- OECD는 『OECD 교육지표집』에 수록할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육체계지표사업(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 INES)을 수행함.
- 이 사업은 1988년에 출범하였고,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기초자료 수집은 유럽 연합 및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주요 교육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국가별 자료 수집을 통해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최신의 지표를 개발함.
- 초기 INES 사업은 통계 분야의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A(교육평가 분야), 네트워크 B(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분야), 네트워크 C(학교교육 및 교육정책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음.

- 2008년에 INES 사업의 지배구조 변경과 함께 교육평가를 다루는 네트워크 A 분야는 폐지되고, 기존의 네트워크 C와 B 분야는 각각 학교교육 통계를 담당하는 교육 시스템 네트워크(NESLIE) 및 교육성과 네트워크(Labor Market & Social Outcomes of Learning; LSO)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참여하여 OECD의 국제교육지표사업의 산출물인 『Education at a Glance』(약칭 EAG)에 활용될 교육의 노동 시장 및 사회적 성과 관련 통계를 발굴하고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음.
- 본원은 LSO(Labor Market & Social Outcomes of Learning)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은 NESLI(System-Level Descriptive Information on Educational Structures, Policies and Practices)를 담당. OECD INES 총괄 주관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
- 기존에는 모든 사업비를 OECD가 부담하던 방식에서 네트워크별 운영비를 참가국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
- 2014년도부터 네트워크 분담금은 교육부가 납부

2. 2014년 주요 사업 내용

- EAG 2014를 위한 기본 통계자료의 검증 및 EAG 2015를 위한 기본 통계자료의 생성 및 제공

- EAG의 지표들 중 LSO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교육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노동시장 이행, 성인학습 관련 지표들
 - 이 지표들 중 A파트의 교육성과와 C파트의 노동시장 이행 단계의 청년층 현황 지표들이 본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기초하여 생성됨.
 - 본원에서 생성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는 교육수준별 소득 데이터(Education and Earnings Data)와 노동시장 이행단계의 청년층 현황(TRANS) 데이터 두 가지
 - EAG 2014부터 PIAAC 데이터를 사용한 지표들이 추가됨에 따라 EAG 지표들 중 본원과 관련된 지표들은 INES 사업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근거한 지표들과 PIAAC 데이터를 사용한 두 가지 지표들로 구분할 수 있음.⁵⁾
- OECD INES LSO 네트워크의 4개 분과(Working Group)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함.
- 제1분과는 성인학습, 제2분과는 교육의 경제적 성과, 제3분과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이행성과, 제4분과는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다루고 있으며, 다음 해의 EAG 발간에 필요한 관련 통계자료를 각 분과별로 요청함.
 - EAG의 구조는 각 분과별로 지표를 개발하면서 매년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거나 기존 지표를 삭제·변경하는 방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국내 통계자료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5) 본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근거하는 지표들의 리스트는 [참고자료 1]에 수록함.

- 연 2회 OECD INES LSO 네트워크 총회에서 4개의 지표 개발 분과 회의에 참석하여 지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우리나라의 데이터 제공여건에 대한 의견 개진함.
 - 총회에서는 매년 EAG 수록을 위한 정규 데이터 수집, 추가적 데이터 수집, 추가 지표 개발, 지표 개선,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국가별 분류 및 데이터 체계 비교 등을 수행함.
 - 4개의 지표 개발 분과 회의에서는 데이터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 데이터 존재 여부와 여건에 대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함.

3. 2015년 관련 현안

- 제12차 총회 노동시장 이행 분과에 참석하여 NEET 비율 관련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함.
 - 현행 NEET 비율은 정규 교육(regular education)에 참여 중이거나 고용되어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 모두 NEET에 포함시킴.
 - 우리나라는 비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 기관에 다니면서 인적자본을 개발 중인 청년층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들을 비활동(inactive) 청년층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함.
 - 영국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이라 우리의 의견에 동의함.
 - LSO는 이들이 다니는 기관의 질이 우수 또는 양호하다면 ‘교육 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임.

- EAG 2015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EAG 2016부터 비형식 교육 (non-formal education)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바로 시작하기로 함.
 - 각 국가별로 비정규 교육에 참여 중인 청년층의 규모를 먼저 파악하기로 함.
- 통계청의 국제기구 원자료 제공 범위와 사업의 내용 충돌
 - 통계청의 고용통계과는 국내 공표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의 국제기구 제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
 - 이러한 방침에 따르면, 그간 제공해 오던 교육수준별 소득 데이터 (Education and Earnings Data)와 노동시장 이행단계의 청년층 현황(TRANS) 데이터 모두 국내 공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OECD에 제공할 수 없고, 따라서 EAG 2015부터는 관련 부분이 모두 Missing으로 처리될 예정⁶⁾
 - 더불어 NEET 관련 우리가 제기한 문제도 더 이상 필요 없어짐.
 - 통계청의 국내 공표 범위를 넘어서는 데이터 제공의 규제로 향후 신규 지표 개발 참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
 - 통계청에서 우려하는 표준오차의 문제는 현재 LSO 팀이 개발 중인 표준오차 개발도구에 따라 비교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표준오차가 큰 국가라고 볼 수 없음.⁷⁾

6) 관련 통계청 고용통계과의 공문은 [참고자료 2]에 첨부함.

7) 표준오차를 계산한 표를 별도의 엑셀파일로 첨부함.

- LSO 팀에서 개발 중인 표준오차 산식은 다음과 같음.

STANDARD ERROR FORMULA

+SQUARE ROOT of: $((\text{estimate} / 100) * (1 - (\text{estimate} / 100)) / \text{sample size}) * 100$

- 위의 LSO 산식에 의거 우리나라의 표준오차를 계산해 본 결과 OECD 국가의 평균치보다 대체로 낮은 표준오차를 보임.
- 계산 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월마다 조사되는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원에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동일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조사했다는 가정하에 1년간의 표본 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것임.

[참고자료 1]

〈표 1〉 EAG 2014: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 관련 지표 목록

Indicator A6: 교육으로부터 얻은 소득 프리미엄
Tables
Table A6.1a. 25~64세의 교육수준별, 연령별 상대 소득(2012)
Table A6.1b. 25~64세의 교육수준별, 연령별, 성별 상대 소득<웹 조사>(2012)
Table A6.2a. 25~64세의 교육수준별, 성별 상대 소득의 추이(2000, 2005, 2010, 2011, 2012)
Table A6.2b. 25~64세의 교육수준별, 성별 상대 소득의 추이<웹 조사>(2000-12)
Table A6.3a. 25~64세의 교육수준별, 연령별 남성과 여성의 소득격차(2012)
Table A6.3b. 25~64세의 교육수준별 남성과 여성의 소득격차 추이(2000, 2005, 2010, 2012)
Table A6.3c. 25~64세의 교육수준별 남성과 여성의 소득격차 추이<웹 조사>(2000-12)
Table A6.4. 25~64세의 성별, 교육수준별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의 분포<웹 조사>(2012)
Table A6.5a. 15~24세 학생의 교육수준별, 성별 상대 소득(2012)
Table A6.5b. 15~24세의 연령별, 학생 여부별 고용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비율 (2012)
Table A6.5c. 15~24세의 연령별, 학생 여부별, 성별 고용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비율<웹 조사>(2012)
Charts
Chart A6.1. 25~64세의 교육수준별, 연령별 상대 소득(2012)
Chart A6.2. 교육수준별 장년층(55~64세)과 청년층(25~34세)의 상대 소득 격차 (2012)
Chart A6.3. 교육수준별 취업자의 상대 소득 분포(2012)

**〈표 2〉 EAG 2014: 학교에서 직장이행 단계의 15~29세 청년층 관련
지표 목록**

Indicator C5: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이동: 15~29세
Tables
Table C5.1a. 근로상태별 15~29세 인구의 교육 및 비교육 기대 연수(2012)
Table C5.1b.(웹 조사) 근로상태별, 성별 15~29세 인구의 교육 및 비교육 기대 연수(2012)
Table C5.1c.(웹 조사) 성별 15~29세 인구의 교육 및 비교육 기대 연수 추이(1999~2012)
Table C5.2a. 연령별, 근로상태별 15~29세 재학 중 인구와 비재학 중 인구 비율(2012)
Table C5.2b.(웹 조사) 연령별, 근로상태별 15~29세 남성의 재학 중 인구와 비재학 중 인구 비율(2012)
Table C5.2c.(웹 조사) 연령별, 근로상태별 15~29세 여성의 재학 중 인구와 비재학 중 인구 비율(2012)
Table C5.3a. 연령별 15~29세의 재학 중 인구와 비재학중 취업, 비취업 인구 비율 추이(1997~2012)
Table C5.3b.(웹 조사) 연령별 15~29세 남성의 재학 중 인구와 비재학 중 취업, 비취업 인구 비율 추이(1997~2012)
Table C5.3c.(웹 조사) 연령별 15~29세 여성의 재학 중 인구와 비재학 중 취업, 비취업 인구 비율 추이(1997~2012)
Table C5.3d.(웹 조사) 교육수준별 15~29세의 재학 중 인구와 비재학 중 취업, 비취업 인구 비율 추이(2006~2012)
Table C5.4 교육수준별, 근로상태별 15~29세 재학 중 인구와 비재학 중 인구 비율(2012)
Table C5.5. 교육 및 비교육에서 15~29세의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무자의 비율 추이(2006~2012)
Charts
Chart C5.1. 15~29세 NEET 인구의 변화(2006~2012)
Chart C5.2. 근로상태별 15~29세 재학 중 인구와 비재학 중 인구 비율(2012)
Chart C5.3 15~29세 비재학중 취업, 비취업 인구 비율(2012)
Chart C5.4. 고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15~29세 NEET 인구의 변화(2011~2012)
Chart C5.4. 15~29세 파트타임 근로와 풀타임 근로 인구의 변화(2006~2012)

[참고자료 2] 통계청 발송 공문과 수신 공문

“행복한 일자리, 역량 있는 직업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뚝뚝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신자 통계청장(고용통계과장)
(경유)

제목 2015년 OECD 교육지표집을 위한 자료 제공 검토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에서는 OECD 교육성과 지표(INES LS0) 네트워크사업(2014) 수행하고 있습니다.
3. 2015년도 OECD 교육지표집 발간을 위하여 불일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KOR_TRANS_EAG2015. 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보답문

★부인구위원

보답장

협조자

시행 동향선단-24 (2014. 11. 25.) 접수 ()
우 135-0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47길 46 / www.krivet.re.kr
전화 02)3485-5003 / 전송 02)3485-5007 / glorylee@krivet.re.kr / 공개

"행복한 일자리, 역량 있는 직업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동행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신자 통계청장(고용통계과장)

(경유)

제목 OECD 신규지표 개발 참여를 위한 자료제공 허용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OECD 교육성과 지표(INES LSO) 네트워크사업(2014) 수행하고 있습니다.
3.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자료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OECD 신규지표개발에 참여하여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OECD 신규지표 개발 참여계획. 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부연구위원

센터장

협조자

시행 동향센터-23 (2014.11.25.) 접수 ()
우 136-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47길 48 / www.krivet.re.kr
전화 02)3485-6008 / 전송 02)3485-6007 / glorylee@krivet.re.kr / 공개

정부3.0완성, 국가통계의 개방 공유!



통계청



수신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경유)

제목 OECD 교육지표 자료제공 관련 검토결과 통보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센터-23호/24호('14.11.2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OECD 교육성과 지표(INES LSO)에 필요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활용)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다음 -

요청사항	검토 결과	비고(국내 공표범위)
성별×연령별×교육정도별×취업시간대별×재학여부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성별 × 연령별 × 교육정도별 교차 통계표만 제공 가능 -국내 공표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교차분석 자료는 제공 불가	국내 공표범위는 자료의 유의미성 등을 고려 성별×연령별×교육정도별 교차 통계까지만 제공
OECD 신규지표* 개발을 위한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 활용 * 최근 졸업자의 교육수준별 고용지표 및 소득 영향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수록된 통계 자료만 활용 가능 -국내 공표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교차분석 자료는 대외제공 등 활용 불가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상태 통계 등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제공

3. 또한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④항에 따라 통계자료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저자 약력

- 유한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채창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양정승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신동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황승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OECD 교육성과 지표(INES LSO) 네트워크 사업(2015)

- 발행연월일 2015년 12월 29일 인쇄
2015년 12월 31일 발행
- 발 행 인 이 용 순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9-11-5940-877-9 93340
- 인 쇄 처 (주)범신사 (02)720-9786